

해방 이후 제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홍기표**

국문요약

해방 후 제주사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그 동안 세 차례 있었다. 1983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년 제주도사연구회, 2011년 제주학회에서 수행하였다. 각각 당시까지의 제주사 연구 논저를 시대별, 주제별로 파악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였다. 거기에 연구자 및 연구기관까지 소개하며 제주사 연구의 주체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83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35년간 국내외에서 간행 발표된 역사 고고 분야에서의 제주도 관계 제반 논저를 개괄, 정리하였다. 1991년의 연구사 정리는 1980년대 논저를 대상으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두 차례의 연구사 정리는 제주사 연구 풍토나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비교적 소량의 논저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비판 및 향후 주제 제시까지 세밀히 정리하였다. 2011년의 연구사 정리는 앞의 두 차례와 달리 내용의 소개와 검토까지 이루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이후 제주사 연구자의 증가, 연구기관(단체)의 창립이 이어지면서 다량의 연구 논저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사 성과를 검토한 후,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

* 본고는 (사)제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2018. 06. 2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함

** 전)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취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째, 시대별 연구주제(연구자)와 전망. 둘째, 제주사 연구기관과 그 성과. 셋째, 제주사 연구과제 검토와 전망. 필자는 이상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해방 이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제주사 관련 논저 목록을 작성하였다. 논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회보』 및 각 기관(단체)의 학술지 목록 등을 참고하여 대략 1,000편 전후가 수집되었다. 이상의 논저를 시대별, 주제별, 기관(단체)별 등으로 분류한 뒤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째 제주사의 주요 논저 목록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둘째 향후 제주사의 시대별 연구 방향과 주제를 제시한다. 셋째 제주사 연구의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제주사, 연구사, 시대, 주제, 기관(단체), 과제.

I. 머리말

해방 후 제주의 역사 연구사 정리는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3년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¹⁾, 1991년은 제주도사연구회²⁾, 2011년은 제주학회³⁾에서 수행하였다. 각각 당시까지의 제주사 연구 논저를 시대별, 주제별로 파악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였다. 거기에 연구자 및 연구기관까지 소개하며 제주사 연구의 주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83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35년간 국내외에서 간행 발표된 역사 고고 분야에서의 제주도 관계 제반 논저를 개괄, 정리하였다. 1991년의 연구사 정리는

-
- 1) 김종업, 권인혁, 고창석, 김용완, 1983,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Ⅱ):역사 고고분야」, 『탐라문화』(2).
 - 2) 김종업, 김동진, 이청규, 고창석, 권인혁, 박찬식, 1991, 「제주도사 연구(1980년대) 회고와 전망-총설~일제시대(5부문)-」, 『제주도사연구』(창간호).
 - 3) 김동진, 2011, 「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 『학술발표논문집(36차)』, 제주학회.

1980년대 논저를 대상으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두 차례의 연구사 정리는 제주사 연구 풍토나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비교적 소량의 논저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비판 및 향후 주제 제시까지 세밀히 정리하였다. 더욱이 연구사 논저자들은 당시 제주대 사학과 교수(강사)들이었다. 역사 전공의 정통 학자들에 의해 당대 전후의 제주사 연구 성과 검토와 전망에 합당한 논지가 전개되었다.

2011년의 연구사 정리는 앞의 두 차례와 달리 내용의 소개와 검토까지 이루지는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제주사 연구자의 증가, 연구기관(단체)의 창립이 이어지면서 다량의 연구 논저들이 쏟아져 나와 1인으로만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해방 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논저들을 시대별, 주제별로 나누어 수치를 통계로 제시하고, 대표적인 연구자 및 연구기관까지 소개하여 당대의 제주사 동향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본고는 이상 세 차례의 제주 역사 연구사 정리를 일괄 검토한 후, 시대별 연구주제(연구자), 제주사 연구기관, 제주사 연구과제의 검토와 전망 등 세 부문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여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 수합한 2017년 현재까지의 제주사 관련 논저들에 대한 간략한 분석까지 추가하였다. 논저는 국편위의 『한국사연구회보』 및 각 기관(단체)의 학술지 등을 참고하여 대략 1,000편 전후가 조사되었다.

본고는 제주 역사 연구사를 정리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째 제주사의 주요 논저 목록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둘째 향후 제주사의 시대별 연구 방향과 주제를 제시한다. 셋째 제주사 연구의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필자의 논지에 대해 토론과 합의를 거친 제주사 연구의 방향타 설정이 곧 본고의 의미라 할 수 있겠다.

II. 시대별 연구 주제와 전망

1983년과 1991년의 연구사 정리는 기존 논고들의 내용을 분석하며 제주사의 논점과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1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제주사 논고에 대해 개별적 내용 분석보다는 연구 주제를 제시하여 향후 제주사 연구 주제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본고 역시 1,000편 전후의 제주사 논고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여 그간의 연구 주제를 분석하고 향후 제주사 연구의 시대별/주제별 과제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또한 2011년의 연구사 정리가 해방 후 1990년대까지의 논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제주사 연구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1. 고대 탐라국 시대

1983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79년까지 고대사 분야의 연구 주제를 4주제로 나누어 11편의 논문을 소개하였다.⁴⁾ 그 연구 주제는 제주도의 선주민, 탐라국 기년과 탐라고대사, 삼국시대 마정, 탐라국과 당과의 관계이다. 연구자로는 8명을 소개하였다.⁵⁾ 한계성으로 고대사 분야의 연구 저조 및 한 주제에 치중하는 등 다양치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91년의 연구사 정리는 1980년대의 연구동향을 개관하며 고대/

4) 김종업 외, 1983, 「해방후 제주연구개관(II)」-역사고고분야-, 『탐라문화』(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5) 연구자(논저) 간략 소개: 김태능(주호인/탐라와 唐), 양홍식(제주인 혈통), 부중휴(선주민), 홍순만(원주민), 김종업(탐라국 기년/탐라상고사), 김봉옥(탐라고대사), 석주명(탐라고사), 남도영(마정 2편).

고려시대의 논문 25편을 소개하였다.⁶⁾ 이 중 12편이 고대 탐라국시대 논문이며, 나머지는 제주사에 대한 일반적 논저(4편)와 고려시대 논저(9편)이다. 연구 주제는 대체로 삼성신화, 탐라의 제 호칭, 탐라와 일본과의 교류 등 3주제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로는 8명을 소개하였다.⁷⁾ 일본인 연구자들이 『속일본기』를 중심으로 탐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조명한 논저가 눈에 띈다.⁸⁾

2011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고대사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를 10개 분야로 나누어 총 25건의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⁹⁾ 그 연구 주제는 명칭, 주호국, 건국(삼성)신화, 서북, 탐라국 기년, 탐라국 형성 및 발전, 탐라사회의 기본구조, 문화, 마정, 제주와 유구 지역사이다. 그리하여 2000년대 들어 최근의 연구 주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소개하였다. (1)탐라국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2)장보고의 해상교역, 법화사와의 관련성 (3)제주해양교역로 및 이를 이용한 문화교류이다.

2000년 이후 고대 탐라사 관련 논문은 30편 전후로 추산되며¹⁰⁾, 저서로는 6권을 찾아볼 수 있다.¹¹⁾ 주제별 대표적 연구가로는 건국

- 6) 고창석, 1991, 「제주도사 연구(1980년대) 회고와 전망-고대,고려시대-」, 『제주도사연구』(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 7) 연구자(논저) 간략 소개: 현용준(삼성신화), 고창석(탐라문헌), 김동전(주호), 박용후(탐라성립), 전경수(탐라사회), 삼공장(탐라방포), 문경현(성주왕자), 견민생(탐라왕권).
- 8) 삼공장, 견민생의 연구 3편이 있다. 삼공장, 1985, 「탐라방포고」, 『속일본기연구』(239); 1986, 「고대탐라의 역사와 일본」, 『조선학보』(118)/견민생, 1990, 「탐라왕권과 일본」, 『탐라문화』(10).
- 9) 김동전, 2011, 「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 『학술발표논문집(36차)』, 제주학회.
- 10) 대표적 연구 논저 간략 소개: 신용하(탐라국 명칭, 2002), 정수일(서북도한고, 2002), 강창화(탐라국 형성, 2003), 김경주(탐라 취락 및 대외교류, 2005/2018), 진영일(탐라국 대외관계, 2007), 이근우(탐라국 소고, 2006), 홍기표(탐라 칠성도, 2012), 진영준(탐라신화 여성성, 2016), 장창은(탐라국 연구쟁점, 2018) 등 10편.

(삼성)신화는 전경수/허남춘, 고고학적 시각에 입각한 탐라국 형성은 이청규/김경주, 일본 고사기를 통해 본 고대 제주 언어는 김공철, 대외관계는 진영일, 서복 연구는 홍순만 등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학계의 논증 과정이 필요한 ‘칠성도와 도성’ 등을 통해 본 탐라국 연구가 강문규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대사(탐라국 시대) 연구는 관련 사료의 빈곤 등으로 인해 연구 논고도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그간의 연구 주제도 주로 독립국 탐라의 ‘실체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건국(삼성)신화, 탐라국기년(성립), 대외관계(중국/일본 등), 문헌탐구 등이 주 연구 대상이었다. 연구자 개인의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편중된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대 탐라사 연구 실적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기존의 실체 규명에 따른 심화 연구도 필요하지만 탐라국의 ‘국가 운영’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지배세력 및 제도사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경제(대외무역)적으로는 해양교역 및 교역품 분석을 통한 연구, 사회적으로는 취락/인구(호구)/신분제 등 사회상 조명, 문화적으로는 학문과 종교의 전래 및 토속 등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 부문에 걸친 균형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해야 통사적인 탐라사 편찬의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옛 문헌 및 유적 유물의 분석을 통한 탐라사 조명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결국 고대사(탐라국 시대) 연구는 향후 통사적인 탐라사 편찬이라는 목표를 향해 위의 ‘국가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부문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11) 『서복집단과 제주도』(홍순만, 제주문화원, 2002), 『고대중세 제주역사 탐색』(진영일, 보고서, 2008), 『제주 고대 향로를 추적한다』(주희춘, 주류성, 2008), 『세계 속의 제주 신화』(양영수, 보고서, 2011), 『고대 제주도의 언어와 역사』(김공철, 백산, 2014), 『탐라왕국』(강문규, 제주학총서32, 2018).

2. 고려 시대

1983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79년까지 고려시대 분야의 연구 주제를 4주제로 나누어 23편의 논문을 소개하였다.¹²⁾ 그 연구 주제는 인물(고조기/김통정/최영), 삼별초와 항쟁, 원 간섭기의 제주, 문화(불교)이다. 연구자로는 15명을 소개하였다.¹³⁾ 고대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 저조 및 한 주제에 치중하는 등 다양치 못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본고 필자가 보건대 이 시기 연구자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김태능이다. 그는 삼별초 이후 원간섭기 까지 고려 후기 5편의 논고를 저술하면서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하였다.¹⁴⁾

1991년의 연구사 정리는 1980년대의 연구동향을 개관하며 고려시대 분야의 연구 주제를 4주제로 나누어 9편의 논문을 소개하였다.¹⁵⁾ 그 연구 주제는 대체로 탐라의 군현설치, 삼별초, 목호난, 목마이다. 연구자로는 4명을 소개하였는데,¹⁶⁾ 그 중 고창석의 연구(6편)가 돋보인다.¹⁷⁾

12) 김종업 외, 1983,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Ⅱ)』-역사고고분야-, 『탐라문화』(2).

13) 연구자(논저) 간략 소개: 이승준(고조기/삼별초), 송석범(김통정), 문선희(김통정), 문인경(김통정), 김찬흠(최영), 김상기(삼별초), 김태능(삼별초 2/원3), 김인제(김통정/삼별초), 홍순만(삼별초), 김혁수(삼별초), 김종업(삼별초), 전인찬(삼별초), 양상익(몽고), 양중해(수정사), 이성환(불교).

14) 김태능, 「탐라와 삼별초」(제주신문 1959.05.12. 이후 9회 연재); 「삼별초난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제주신문 1959.06.13. 이후 7회 연재); 「탐라와 원의 목양시대」(제주도 18/19호 1964/1965);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목호토벌」(제주신문 1959.07.18. 이후 12회 연재); 「원순제의 피난궁전지와 백백태자의 묘」(제주도 31호 1967).

15) 고창석, 1991, 「제주도사 연구(1980년대) 회고와 전망-고대, 고려시대-」, 『제주도사연구』(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6) 연구자(논저) 간략 소개: 홍순만(삼별초), 고창석(목호란 외), 진축삼(제주마), 김구진(탐라총관부).

17) 고창석은 「탐라의 군현설치에 대한 고찰」(1982, 제주대논문집14), 「여

2011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고려시대 주요 연구 주제를 10개 분야로 나누어 총 25건의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¹⁸⁾ 그 연구 주제는 군현 설치, 일본/송, 원, 고려 및 원, 삼별초, 문화교류, 목장, 민란, 목호란, 불교이다. 그리하여 2000년대 들어 최근의 연구 주제를 다음의 네 가지로 소개하였다. (1)고려의 제주 지배 (2)삼별초의 제주 항쟁 (3)제주와 오키나와의 관계 (4)제주와 몽골과의 관계규명이다.

2000년 이후 고려시대 탐라사 관련 논문은 50편 전후로 추산되며¹⁹⁾, 저서로는 4권을 찾아볼 수 있다.²⁰⁾ 특히 고창석²¹⁾, 진영일²²⁾, 윤용혁²³⁾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에 계속 매진하여 선도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김일우²⁴⁾, 2010년대 이후 전

원과 탐라와의 관계」(1984, 제주대논문집17), 「원명교체기의 제주도」(1985, 탐라문화4), 「원대의 제주도목장」(1985, 제주사학창간호) 등을 발표하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의 물꼬를 텃다.

- 18) 김동진, 2011, 「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 『학술발표논문집(36차)』, 제주학회.
- 19) 대표적 연구 논저 간략 소개: 진영일(탐라군 설치/외관, 2003/2004), 윤용혁(삼별초, 2001~2016), 김일우(법화사/행정단위/여성, 2002/2007/2008), 노명호(탐라와 고려, 2005), 전영준(기와수공업/양수의 난, 2016/2017), 박원길(영락제, 2013), 이종수(음식문화, 2015/2016), 강만익(탐라목장, 2016), 김경주(고고자료, 2016), 김보한(환해장성, 2016), 양정필(해상활동, 2018) 등.
- 2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김일우, 신서원, 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윤용혁, 일지사, 2000), 『탐라와 유구왕국』/ 『삼별초와 동아시아』(국립제주박물관, 2007/2017).
- 21) 고창석은 주로 1980년대 군현설치, 민란, 여원과 탐라 등의 주제로 6편의 논문이 있다.
- 22) 진영일은 고려전기 탐라국, 탐라군 설치와 외관, 성주와 삼신인 등의 주제로 5편의 논문이 있다.
- 23) 윤용혁은 1990년대 이후부터 삼별초 연구를 수행해와 2000년대 이후로도 6편의 관련 논문이 있다.
- 24) 김일우는 행정단위, 몽고(원)와의 관계, 생업(해상)활동, 삼별초, 법화사 중창 등 고려 전 시기에 걸쳐 10편이 넘는 논문을 써내 현재 고려시대 탐라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다.

영준²⁵⁾, 홍기표²⁶⁾ 등 고려시대 전공 학자들이 이 시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역시 연구자 개인의 특정 주제 중심으로 편중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탐라와 대외국 사이의 관계 조명이 연구 주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고려전기는 고려와의 교류 및 고려의 군현 설치(행정체제), 고려후기는 삼별초 항쟁과 원과의 관계(원의 통치기구, 목마, 목호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특히 몽고(원)와 관련한 삼별초 항쟁 및 목마(목호) 연구가 이 시기 연구 주제의 핵심이었다. 이외에 인물과 불교 등 문화 부문 연구가 소수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고려 및 일본/몽고(원)와의 관계 속에서 탐라(국)의 성격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행정체제 외에 지배집단의 변천상(특히 민란과 목호난과 연계), 외관과 토착세력간의 관계 등, 경제적으로는 농업/수공업/대외무역 등 경제활동, 사회적으로는 설촌 유래와 유이민 집단, 문화적으로는 학문(교육 포함)과 종교(유불)의 성격 및 인물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 일본/송원과의 해양교류와 대외관계 연구, 옛 문헌 및 유적 유물의 분석을 통한 탐라 조명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는 탐라국에서 조선시대 지방군현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라는 의미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탐라 고유의 체제(문화)가 고려/조선의 체제(문화)와 만나 어떻게 조율하며 그 성격이 변천해갔는가가 연구의 초점이 돼야 한다.

25) 전영준은 목축, 향과두리성, 기와수공업, 양수의 난 등 5편의 논문이 있다.

26) 홍기표는 제주 입도조(이주민) 연구 등 2편의 논문이 있다.

3. 조선 시대

1983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79년까지 조선시대 분야의 연구 주제를 10주제로 나누어 76편의 논문을 소개하였다.²⁷⁾ 그 연구 주제는 인물(고득중/김만덕/효자효부/목민관/유배인), 저술 및 기문류, 표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반란과 민요, 교육, 지도이다. 연구자로는 33명을 소개하였다.²⁸⁾ 조선시대 연구는 일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비교적 다양한 논고가 발표되었다고 소개하였다. 본고 필자가 보건대 앞선 고려시대 뿐 아니라 조선시대 분야까지도 김태능이 29편의 논고를 저술하면서 연구를 선도하였다. 그는 인물(목민관 및 유배인 등)²⁹⁾과 표류(하멜과 최부 등)³⁰⁾ 관련 주제에 다수의 논고를 남겨 향후 이 분야 제주시 연구

27) 김종업 외, 1983,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Ⅱ)-역사고고분야-」, 『탐라 문화』(2).

28) 연구자(논저) 간략 소개 : 이승준(고득중), 김태능(우마적/김만덕/목민관/유배인/표류민 등 다수), 한찬석(김만덕), 김찬홍(효자효부), 고남준(박계곤), 김동성(부친검), 김형익(홍달한), 문인경(현원상), 함원택(고윤문), 진원일(오현/박영효), 김보현(오현), 홍순만(유형인/목민관), 홍정표(목민관), 김종업(목민관/세종), 김봉옥(목민관), 박용후(남사록), 김익수(속음청사), 고병익(주영편), 최상수(안남표류), 고응삼(서련), 김순희(고득중), 김한희(충암), 김행옥(송시열), 정병욱(장한철), 홍이섭(주영편), 김양선(화란인표류), 김세혁(수령), 남도영(목장), 김진봉(민란), 현인홍(교육), 강석규(교육), 오홍석(탐라지도), 권영철(탐라순력도).

29) 김태능의 목민관 관련 논고는 제주목사를 역임하며 치적을 남긴 4명(노정, 이형상, 김정, 장림)에 대한 것이며, 유배인 관련 논고는 김정희, 신성익, 신명규 2대, 김정, 정은, 노씨부인, 임관주, 이건 등 9명에 대한 것이다. 특히 제주신문에 1964년 1월 1일부터 52회의 연재(고대 제주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제주의 유적인들)를 통하여 약 300여 년간 50여 명의 제주 유배인들을 소개하였다.

30) 김태능의 표류 관련 논고: 벨테브레, 하멜, 반청한인 등 외국인의 제주 표류와 이광빈, 김비의, 최부 등의 표류를 소개한 9편의 논고가 있다. 특히 최부의 표해록을 제주신문(1970. 03. 27.~)에 번역 소개(연재 42회)하였다.

의 선구자였다. 또한 특이 사항으로 조선시대 여러 역사지리지 및 문집류가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역주되기 시작하였다.³¹⁾

1991년 연구사 정리는 1980년대 조선시대 연구 분야를 크게 정치, 사회경제, 문화, 자료의 4부문으로 나누어 총 66편(정치17편, 사회경제7편, 문화17편, 자료25편)의 논고를 소개하였다.³²⁾ 4부문별 연구 주제는 정치 부문은 행정/군사/유배/민란으로, 사회경제 부문은 사회상/유민/신분/경제로, 문화 부문은 인물/민속/지리/교육/유적으로, 자료 부문은 소개/자료조사/국역/영인으로 다시 세분하여 총 17주제가 되었다. 연구자로는 48명(정치13명, 사회경제5명, 문화14명, 자료16명)을 소개하였다.³³⁾ 특징은 1980년대 후반기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자료 부문의 관심이 높고 사회경제 부문의 연구 성과가 가장 저조하여 부문별 연구의 심한 편차를 한계성으로 지적하였다.

2011년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조선시대 주요 연구 주제를 14개 분야로 나누어 총 79건의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³⁴⁾

31) 제주풍토기(이건), 남사록(김상헌), 속음청사(김윤식), 제주풍토록(김정), 주영편(정동유), 표해록(장한철) 등이 각각 김태능(1964), 박용후(1972), 김익수(1973), 홍정표(1975), 고병익(1960), 정병욱(1979)에 의해 번역되었다.

32) 권인혁, 1991, 「제주도사 연구(1980년대) 회고와 전망-조선시대-」, 『제주도사연구』(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33) 4부문별 연구자(기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정치: 길전광남, 홍순만, 김동전(이상 행정), 김봉욱, 김찬흡, 박용후, 김병하(이상 군사), 김봉현, 홍순만, 고창석, 강주진(이상 유배), 권인혁(민란). ②사회경제: 김종업(사회상), 한영국, 고교공명(이상 유민), 조성윤(신분), 권인혁(경제). ③문화: 홍성추, 홍순만, 강용삼(이상 인물), 강정홍, 현길연, 김봉욱(이상 민속), 오홍석, 최서면(이상 지리), 김종업, 양순필, 양진건, 고창석(이상 교육), 홍순만, 고창석, 이청규, 강창언(이상 유적). ④자료: 양순필, 김봉욱, 정병욱, 윤치부(이상 소개), 탐라문화연구소(자료조사), 김봉욱, 오문복, 김지홍, 김용원, 박용후(이상 국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아세아문화사, 여강출판사, 탐라문화연구소, 제주역사연구회(이상 영인).

그 연구 주제는 정치(목민관), 재정/경제, 토지매매, 마정, 신분/노비, 향촌구조, 왜구/해민, 표도/표류, 제주계록, 교육, 유배, 민란, 풍장/신앙, 지명/항로이다. 그리하여 2000년대 들어 최근의 연구 주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소개하였다. (1)표류와 표도 등 해양문화와 교류 (2)고문서를 활용한 재산상속, 토지매매, 호구변동, 속오군 (3) 호적중초 분석(공노비, 대원본관, 몽골후손, 향리, 여성호주, 부세운영, 포작 등)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조선시대 제주사 관련 논문은 165편 전후³⁵⁾, 저서로는 100여 권 전후로 추산된다.³⁶⁾ 대표적 논저자로는 고창석³⁷⁾, 김동전³⁸⁾, 양진건³⁹⁾ 등이 다수의 연구 성과를 냈으며, 최소한 3편 이상의 논문 성과를 낸 연구가도 14명⁴⁰⁾에 이를 정도로 다

-
- 34) 김동전, 2011, 「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 『학술발표논문집(36차)』, 제주학회.
 - 35) 조선시대 제주사 연구 논문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78편이 『탐라문화(21~57)』(2000~2018/35편), 『제주도연구(18~48)』(2000~2017/16편), 『탐라순력도연구논총』(2000/27편)에 실려 있으며, 나머지 87편이 기타 학술지에 수록되었다.
 - 36) 조선시대 저서 발간은 대부분 연구기관에서 역주서 및 학술총서로 나온 것이었다. 여기서는 이들을 제외한 대표 논저를 간략 소개한다. 『고문서집성(108/110/114)』(한국학중앙연구원, 2014/2014/2015.), 『탐라순력도연구논총』(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탐라순력도산책』(김오순, 2001), 『제주유배문학자료집(1)』(양진건, 2008), 『제주 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양진건, 2012), 『은광연세』(김만덕기념사업회, 2007), 『제주목 지지총람』(제주대박물관, 2002).
 - 37) 고창석은 개인소장 분재기, 전담매매문기 분석과 효열록, 대정군군병도안, 보초등록, 제주계록, 절목류 등 고문서와 고문헌의 역할을 통한 연구 성과(논문 및 제주사총서 등)를 20편 전후 내놓아 이 방면 연구의 선구가 되었다.
 - 38) 김동전은 대정현(덕수리, 사계리, 하모리 등) 지역의 호적중초를 이용해 조선의 호구정책과 제주 향촌사회의 호구 실상 분석을 기한 논문이 10편에 달하여 이 방면 연구의 선구가 되었다.
 - 39) 양진건은 조선시대 제주의 교육 체계와 실상 및 유배인 연구 논저가 10편에 달하여 선학들이 뿌리 내린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양한 분야에서 조선시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조선시대 제주사 연구의 가장 큰 줄기는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역주서의 대량 발간, 둘째 고문서 분석을 통한 제주 사회경제상 파악⁴¹⁾, 셋째 표류로 대변되는 해양교류 연구⁴²⁾가 그것이다. 특히 역주서의 대량 발간이야말로 조선시대 제주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였다. 제주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학 연구센터 등이 주축이 되어 조선시대 고문헌(고문서) 및 개인 문집을 약 40여 권 역주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연구 저서의 절반에 이른다.⁴³⁾ 제주 관련 인물의 개인문집이 20권이 넘고, 최근에는 제주 출신 유학자들의 역주서까지 등장하여 인물사 및 문학사, 사상사 분야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외에 『탐라지』와 같은 제주 역사지서의 역주 발간도 10권에 달해 제주사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문서류의 역주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당대 향촌사회

-
- 40) 연구자(논문 주제) 간략 소개: 강동호(최익현/정은/김상헌), 강창용(양로연/절목/중국인표도), 김건태(여성/문중/공노비), 김나영(포작/표류/고표), 김영란(절목/토지매매/고문서), 김일우(수산진/김희정/관방시설), 박찬식(진상/상찬계), 오상학(탐라지도/서양고지도), 조성윤(의례/김만일/인구변화), 진관훈(공적부조/구빈/박영효), 한금순(법정사/호적/여정), 허원영(부세/호구/가족), 홍기표(남사록/목민관비/정려비)
- 41) 고창석과 김동전이 주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는 분재기, 매매문기 등의 고문서를 역주하여 기층의 향촌사회상을 조명하는 성과를 냈으며, 후자는 대정읍 지역의 호적중초 분석을 통해 당대 향촌사회의 가족 구성, 호구(인구) 변동, 역 부담 등의 실상을 밝히고 있다.
- 42) 표류(민)를 고리로 한 해양교류 주제의 논저는 20편이 넘는다. 『항해와 표류의 역사』(국립제주박물관, 2003), 『탐라문견록』(정민, 2008), 『최부의 중국견문』(국립제주박물관, 2015), 『해외문견록』(김새미오 외, 2015), 『이방익표류기』(권무일, 2017), 『제주 바닷 표류의 기억』(진선희, 2017) 등의 저서와 더불어 최근에는 제주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으로 2편(왕천천/2016, 김나영/2017)이 발표되었다.
- 43) 역주서에 대한 서명, 역주기관, 역주자 등의 구체적 사실은 본고 3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 사회상 연구가 보다 세밀히 연구될 토대가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승정원일기』 중 제주기사를 역주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관찬사서 역주 작업까지 추진하여 조선시대 제주사 연구의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주 작업을 주도하는 역주자들은 김익수, 오문복, 고창석, 김영길, 현행복 등 원로학자들은 물론 김지홍, 김일우, 홍기표, 오창명, 백규상, 이진영, 김새미오 등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다.⁴⁴⁾ 특히 김익수, 오문복, 고창석은 각각 문집, 한시, 고문서류를 대상으로 수많은 역주서를 발간해 제주사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상의 역주자들이 향후 제주의 고문헌과 사료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충실한 역주 작업을 수행하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제주를 주제로 한 역사 박사학위논문도 5편 확인할 수 있다. 허원영⁴⁵⁾, 김오진⁴⁶⁾, 이영권⁴⁷⁾, 왕천천⁴⁸⁾, 김나영⁴⁹⁾ 등이 그들이다.⁵⁰⁾ 주로 조선시대 제주의 사회상 및 표류를 연구 주제로 삼은 이들이 향후 시대별 주제별 범주를 넘나드는 연구 성과를 내도록 기대해본다.

44) 역주자들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의 기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총서의 일환으로 역주를 수행하고 있다.

45) 한국학중앙연구원,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2006.

46) 건국대 지리학과,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2009.

47) 제주대 사회학과,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2013.

48)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조선의 중국 표류민 송환방식 변화와 청초 동아시아 해역」, 2016.

49) 제주대 사학과, 「조선시대 제주도 표류 표도 연구」, 2017.

50) 이들과 달리 강만익은 박사학위논문의 주제가 비록 일제강점기(「일제 시기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 연구」, 제주대 사학과, 2011.)이지만 조선시대 제주의 목마장과 잣성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선시대 제주사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심도 있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연구 주제도 정치경제, 사회문화 및 해양교류와 자료 부문에 걸쳐 거의 통사적 수준에 이르는 내용성을 갖추었다. 정치는 행정, 군사, 유배, 민란 부문, 경제는 재정, 수취체제, 부세 및 진상, 마정 부문, 사회는 신분, 향촌구조, 본관, 노비, 향리, 호적/호구/호주, 고문 서류 부문, 해양교류는 대외교역과 표류 표착 부문, 문화는 인물, 교육, 민속, 지리-지도, 유적 부문, 자료는 고문서 및 문집류의 발굴과 국역 부문 등 17개 소주제로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사 연구의 과제로 필자는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제언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는 탐라가 조선의 삼읍 체제로 편입되고 온전히 조선의 한 지방(변방)으로 전락한 때였다. 예컨대 지배층 분석만 하더라도 고려 말까지는 고려vs원/명vs토착세력 삼자구도의 역학관계 조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탐라는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이라는 하나의 지방 군현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탐라의 독립적 체제와 풍속이 어떻게 조선에 동화되어 갔는가? 또 조선이 제주를 대하는 다방면(수취, 유배, 진휼 등)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자세가 필요할 듯하다.

4. 근대(1863~1910)

1983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79년까지 근대(구한말) 분야의 연구 주제를 2주제로 나누어 12편의 논문을 소개하였다.⁵¹⁾ 그 연구 주제는 반란과 민요, 일본 어민의 제주 근해 침투이다. 연구 자료는 9명을 소개하였는데⁵²⁾, 1901년 신축년 교난(‘이재수 난’) 연

51) 김종업 외, 1983,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Ⅱ)』-역사고고분야-, 『탐라 문화』(2).

구가 8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주목된다.⁵³⁾

1991년 연구사 정리는 1980년대 구한말 연구 분야를 민란, 일본의 어업침탈, 교육, 유배인의 4주제로 나누어 14편의 논문과 연구자 14명⁵⁴⁾을 소개하고 있다.⁵⁵⁾ 이 중 10편이 1898년과 1901년의 제주도민란을 다루어 ‘민란’ 연구가 이 시기 핵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2011년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일제강점기를 제외한 한말의 주요 연구 주제를 네 분야로 나누어 총 25건의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⁵⁶⁾ 그 연구 주제는 사회경제, 어업, 민란, 교육이다. 그리하여 2000년대 들어 최근의 연구 주제를 다음의 두 가지로 소개하였다. (1)한말 지식인, 1901년 민란과 천주교 (2)근대 제주불교이다.

2000년 이후 구한말 제주시 관련 논문은 20여 편 전후로 추산되며⁵⁷⁾, 저서로는 5권을 찾아볼 수 있다.⁵⁸⁾ 특히 1901년 이재수난과

52) 연구자(논저) 간략 소개 : 유홍렬, 김태능, 박광성, 김인제, 오성찬(이상 1901년 민란), 현계순, 이원순, 권석봉, 한우근(이상 일본 어업침탈).

53) 유홍렬, 「제주도에 있어서의 천주교박해」(1956); 「제주도의 천주교 전래」(1972). 김태능, 「성교란」(1962); 「성교란 사건과 삼장두의 공술내용」(1964). 박광성, 「1901년 제주도민란의 원인에 대하여」(1967). 김인제, 「제주의 신축년 천주교교난」(1967); 「동(외교면에서의 고찰)」(1969). 오성찬, 「이재수의 난」(1967).

54) 연구자(논저) 간략 소개 : 조성윤, 권영배(이상 1898년 민란), 강창일, 김옥희, 정진각, 홍순옥, 이정훈, 한양은, 이기석, 김양식(이상 1901년 민란), 강만생(어업침탈), 양진건(교육사상사), 강재연, 홍순만(이상 유배인).

55) 박찬식, 1991, 「제주도사 연구(1980년대) 회고와 전망-한말일제시대-」, 『제주도사연구』(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56) 김동전, 2011, 「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 『학술발표논문집(36차)』, 제주학회.

57) 대표적 연구 논문 간략 소개: 박찬식(1901년 민란, 2007/2008), 김동전(제주 지식인, 2008), 손병규(호적/호구, 2010/2011), 전영준(제주 기상변화, 2014), 현광호(1901년 민란, 2015), 김새미오(심재/해은 문학, 2016/2017) 등.

천주교 연구는 박찬식이 10편 전후의 논고를 남겨 이 부문 대표적 연구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일본의 어업 침탈은 강만생⁵⁹⁾, 유배인과 근대 교육은 양진건⁶⁰⁾ 근대 제주불교는 한금순⁶¹⁾ 근대 제주 유학자의 삶과 문학은 김새미오⁶²⁾ 호적을 통해 본 사회상은 손병규⁶³⁾ 등의 연구가 있다.

1863년 고종의 즉위와 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열렸다. 양요로 대변되는 서양 열강의 침입과 그에 맞선 통상수교거부 정책이 10년간 이어지다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문호개방을 하였다.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까지 이른바 구한말로 불리는 이 시기 탐라사 연구는 격동의 시대였다. 지방관의 수탈, 일본(어민)의 침탈 및 크리스티교의 유입은 제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그에 맞선 제주민의 봉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자연히 연구의 주제 역시 민란과 일본의 침탈 및 서양과의 접촉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1901년 이재수난과 일본(어민)의 침탈 부문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그 외 근대교육 및 유배인, 불교 등의 연구가 뒤를 이었다.

58)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박찬식,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1901년 제주민란 연구』(박찬식, 각, 2013), 『멸치를 통해 본 조선의 어업 문화와 어장 약탈사』(김수희, 아카넷, 2015),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한금순, 경인문화사, 2013), 『제주유학의 큰 스승 부해 안병택』(국립제주박물관, 2017).

59) 강만생, 1986, 「한말 일본의 제주어업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3), 제주학회.

60) 양진건, 1990, 「제주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 연구」(『민족문화연구(23)』, 고려대); 1997, 「신정여학교 연구」(『탐라문화(18)』); 2014, 「최익현 유배한시와 제주교육」(『인문학논총(35)』, 경성대).

61) 한금순, 2010,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62) 김새미오, 2016/2017, 「심재 김석익/해은 김희정 문학」, 『온지논총(48)/탐라문화(54)』.

63) 손병규, 2005/2006, 「대한제국 호적정책/하모리 호구」, 『대동문화연구』(49/54).

따라서 향후 이 부문 연구는 정치경제적으로 수취체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대립, 대외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제주민의 대응, 사회적으로 호적 등 고문서류를 통한 가족/호구(인구)/공적부조 등의 향촌사회 성격, 문화적으로 외래문화와 토착문화의 접촉(근대 문물과 종교의 유입/유배인과 제주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제주의 근대사 성립과 전개라는 대전제 아래 '(외부의)유입과 (제주의)대응'이라는 연구방법론을 가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5. 총설/기타

1983년의 연구사 정리는 1945년부터 1979년까지 통서류와 관련하여 저서 7주제, 논고 4주제로 나누어 총 42편의 저서(27편)와 논고(15편)를 소개하였다.⁶⁴⁾ 저서의 연구 주제는 제주도 관계 자료집, 제주 역사지리지, 군읍면 향토지, 백과사전적 저술, 교육, 종교, 기타이며,⁶⁵⁾ 논고의 연구 주제는 제주도사 정립 시도, 방어시설, 경제(축산/마정), 교육이다.⁶⁶⁾ 연구자로는 26명을 소개하고 있다.⁶⁷⁾ 하

64) 김종업 외, 1983,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Ⅱ)」-역사고고분야-, 『탐라문화』(2).

65) 이 시기 대표적인 저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문헌집』(1949), 『제주도자료집』(1971), 『탐라문헌집』(1976), 『증보탐라지』(1954), 『남제주군지』(1978), 『곽지지』(1951), 『한림읍지』(1963), 『남읍향사』(1969), 『예래지』(1976), 『조천지』(1975), 『탐라성주유사』(1979), 『제주연감』(1969~1980/4차), 『제주교육사』(1979), 『제주선교70년사』(1977), 『해녀연구』(1970). 한편 일본에서 발간된 김봉현의 저서 2편 [『제주도유인전』(1956), 『제주도역사지』(1960)]에 대한 소개는 누락되었다.

66) 김태능은 「탐라향토사초고」(1959), 「제주도약사」(1969) 등을 저술하여 통사적인 제주도사 정립을 시도하였다.

67) 연구자(논저) 간략 소개: 석주명(제주도 문헌집/자료집), 김봉옥(영주지/마정), 홍정표(제주풍토록/마정), 박용후(남사록/탐라국서/제주도지/

지만 아직 전문적인 가치를 가질만한 논저는 없으므로 앞으로 교과서적인 통사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1991년의 연구사 정리는 1980년대 연구 성과를 통사류⁶⁸⁾, 행정기관의 ‘지’⁶⁹⁾, 마을지⁷⁰⁾의 3주제로 나누어 각각 4편, 5편, 36편 등 총 45편의 저술을 소개하였다.⁷¹⁾ 특히 이 시기에는 1981년 제주대 사학과 설립, 1989년 제주역사연구회와 제주도사연구회 창립, 일본에 탐라연구회(1985)와 일본탐라학회(1987)의 창립이 이어져 전문 학자 및 연구기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제주사가 지방사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방어시설, 김태능(제주풍토기/제주도약사/제주 제성), 김행옥(탐라지), 김계연(탐라기년), 담수계(증보탐라지), 양홍식, 오태용(이상 제주향토기), 한치문(탐라실록), 고병오(원대정군지), 김정연(곽지지), 김옥민(한림읍지), 김맹옥(납읍향사), 김종근(예래지), 김보현(조천지), 김영돈(정의고을), 우락기(제주도), 이병도(하멜표류기), 강문호, 문태선(이상 제주선교70년사), 강대원(해녀연구), 김서연(축산), 남도영(목장), 강석규(교육).

- 68) 김봉현, 『제주도역사지』(1960); 김중업, 『탐라문화사』(1986); 김봉옥, 『제주통사』(1987); 김태능, 『제주도사논고』(1982).
- 69) (해당)지방자치단체 문화공보실 편찬:『제주도지』(1982), 『제주시30년사』(1985), 『남제주군지』(1986), 『북제주군지』(1987), 『서귀포시지』(1988).
- 70) 제주대 국문과(『국문학보』)/국교과(『백록어문』), 1982년~1990년, 덕수/납읍/곽지/광령/대평/명월/온평/하례/귀덕/김녕/동북/고산의 12마을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이 내용을 묶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부락지』(1~3) 편찬. 또한 오성찬 외, 1985년~1989년, 『제주의 마을』(도두/오조/함덕/호근/서호/고성/애월/봉개/대정/화북/한림) 시리즈 10권 편찬. 개인 편찬 마을지는 김봉옥(고내리지), 오대현(표선면향토지), 김행옥(증보 납읍향사), 윤경로(향토강정), 부영성(구좌읍지), 박수양(김녕리향토지), 김영돈(정의고을), 박용후(모슬포)의 8편. (해당 마을)편찬위원회에서는 조수리(향토지), 연동(연동향토사), 종달리(지미의 맥), 신례리(예촌지), 가시리(가스름)의 5편.
- 71) 김중업/김동진, 1991, 「제주도사 연구(1980년대) 회고와 전망-총설-」, 『제주도사연구』(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2011년 연구사 정리는 2000년대 들어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소개하였다.⁷²⁾ (1)탐라순력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활용 연구 (2)고지도/고문서의 이두와 지명 연구 (3)추사 김정희 등 유배문화와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4)해녀의 역사와 정체성, 보존을 위한 연구 (5)전근대 제주 여성의 실제 규명 작업이다.

2000년 이후 통사를 포함해 총설/기타류의 제주사 관련 논문은 30여편 전후로 추산되며⁷³⁾, 저서로는 100여 권이 훨씬 넘고 있다.⁷⁴⁾ 특히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의 『탐라문화(학술)총서』, 제주학 연구센터의 『제주학총서』, 제주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등의 향토 사료 역주서, 국립제주박물관의 도록 및 학술총서만 해도 70여 권에 달한다.⁷⁵⁾

이 부문 제주사의 연구주제는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주 관련 사료 발굴과 국역 둘째 통사적인 제주사 편찬 시도 셋째 주제별 제주사 연구의 시도이다. 특히 제주 관련 사료 발굴과 국역 부문에 대한 연구는 활기차게 이루어 많은 저서를 내었다. 관련 학자

72) 김동진, 2011, 「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 『학술발표논문집(36차)』, 제주학회.

73) 주제별로 논저자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고지도 관련 연구(양보경/2001, 박대현/2001, 오상학/2013), 돌하르방 관련 연구(김정선/2008, 부정민/2013, 정성권/2015), 동자석 연구(이창훈/2009, 김춘일/2015) 제주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전영준/2015).

74) 2000년대 들어 발간된 제주사 관련 총서류는 대부분 제주사 연구 관련 기관에서 편찬한 학술총서들이다. 이 내용은 본고 3단원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외의 대표적 연구서를 소개한다. 『제주도목장사』(남도영, 마사박물관, 2003), 『새로 쓰는 제주사』(이영권, 휴머니스트, 2005), 『바다에서 바라 본 탐라의 역사』(고용희, 각, 2008), 『시대를 앞서간 제주 여성』(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5).

75)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제주 역사지리지 및 관련 저서들은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고는 선사시대 및 고고학 분야와 일제강점기 이후의 논저를 고찰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에 이 부문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및 번역가들에 의해 제주 관련 사료(고문헌 고문서)들이 발굴되고 이를 번역하여 학계 및 일반 대중에 널리 알리는 작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같은 연구기관의 (재정)지원과 관심이 큰 역할을 하였다.

주제별 제주사 연구 역시 상당 수준의 성과를 내는 부문이 있다. 예컨대 지역별 역사지(시읍면동리 지지)나 해녀 연구를 포함한 여성사 등의 분야는 행정기관의 (재정)지원과 맞물려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이외에 유배사, 문학사, 백과사전 저술(제주어사전, 제주사인물사전) 등도 향후 본격적 연구의 출발점에 서있다. 이처럼 보다 다양한 주제의 제주사 편찬 시도는 향후 제주사 연구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생각된다.

통사적인 탐라사(제주사) 편찬은 제주사 연구의 최종목표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그만한 한계가 엄연히 있기도 하다. 즉 탐라의 전근대사 중 고대 탐라국 및 고려시대 탐라에 대한 연구 분야가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다. 사료의 빈곤, 소수의 연구자 등의 조건은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이 부문 연구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들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면서 통사적인 탐라사(제주사) 편찬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조만간 연구기관 및 연구자간 토의와 협력에 의한 추진위 발족을 기대해 본다.

Ⅲ. 제주사 연구 기관과 그 성과

현재 제주사 연구 기관 및 성과물은 특정 기관과 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 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제주학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문화원, 제주도내 박물관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방 후 1970

년대까지는 김봉현, 김태능, 박용후, 홍순만, 김찬흡, 김익수, 오문복 등의 향토사가 중심의 개인적인 연구가 있어왔다. 특히 1960~1970년대는 『제주도』, 『교육제주』와 같은 행정기관 발행의 기관지에 제주 역사 관련 논고들이 수록되어 맥을 이어갔다. 1981년 제주대 사학과가 설립된 후부터는 김종업, 고창석, 진영일, 권인혁, 이청규 교수 등 역사전공 학자들이 제주시 연구에 투입되었다. 이리하여 1990년대까지는 향토사가와 제주대사학과 교수(강사) 중심의 제주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91년 이들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의 역사교사까지 참여한 ‘제주도사연구회’가 창립되면서 제주시 연구는 활기를 띠어 갔다. 하지만 2000년대 전후 지역 단위의 지역학 연구 풍토가 학계를 주도하면서 제주시는 ‘제주학’ 연구 범위에 들어가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제주시와 관련한 연구 및 출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고고/선사 분야와 근현대사 분야를 제외한 탐라사(제주시) 연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전통문화연구소(1999), 제주문화예술재단(2000),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2004), 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6),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08), 제주고고학연구소(2009) 등에서 발간된 보고서 및 학술총서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배제하였다. 이제 대표적인 제주시 관련 연구 기관 소개 및 그간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은 1967년 제주도문제연구소로 창립되어 1976년 탐라문화연구소로 개칭한 이후 제주학 연구의 사실상 본산 역할을 해왔다. 제주학을 하나의 학문체제로 정립하고, 제주의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제 영역에 걸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

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해마다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탐라문화』, 『탐라문화총서』, 『탐라문화학술총서』 등을 발간하여 제주사 뿐 아니라 제주학 연구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다.

『탐라문화』는 1982년 창간호부터 2018년 57호까지 500편이 넘는 제주학 관련 논문을 수록하였다. 이 중 제주사 관련 논문은 대략 138편으로 꼽을 수 있다.⁷⁶⁾ 현재까지 제주사 관련 논문으로는 가장 많은 글이 수록된 학술지로 그 위상이 높다. 고대사 17편⁷⁷⁾, 고려시대 16편⁷⁸⁾, 조선시대 84편⁷⁹⁾, 기타 21편⁸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특징으로는 조선시대 제주사 연구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 76) 『탐라문화』에 수록된 제주사 논문 목록은 본고 말미에 [부록 1]로 소개하였다.
- 77) 『탐라문화』에 수록된 고대사 관련 논문 중 대다수는 삼성신화 관련 논문이다. 그 외 탐라국과 관련 대표적 논문으로는 「탐라왕권과 일본」(견민생, 1990, 10호),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진영일, 2007, 30호),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장창은, 2018, 57호) 등을 꼽을 수 있다.
- 78) 『탐라문화』에 수록된 고려시대 관련 논문은 총 16편 중 4편이 진영일의 글로써 그의 연구가 돋보인다. 대표적 논문으로는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진영일, 1996, 16호),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고창석, 1985, 4호), 「고고자료로 살펴 본 원과 탐라」(김경주, 2016, 52호) 등을 꼽을 수 있다.
- 79) 『탐라문화』에 수록된 조선시대 관련 논문은 총 84편 중 14편이 고창석의 글로써 그의 연구가 돋보인다. 고창석의 연구는 분제기, 전답문기 등 고문서를 통해 제주의 사회상 조명을 다뤘다(13/14/16/18/19/20/21/22/24/29호). 양진건(교육), 오창명(고문서 지명), 박찬식(19세기 농민봉기), 권인혁(수취체제), 김동전(호구자료 분석), 조성운(인구 변화) 등이 3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주목할 만한 연구 논문으로는 진관훈(공적부조, 22호), 한금순(女丁, 53호), 김나영(표류, 57호), 양정필(무역, 55호) 등이 손꼽힌다.
- 80) 『탐라문화』에 수록된 기타 논문 중 대표적인 것인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Ⅱ);역사고고분야」(김종업 외, 1983, 2호), 「제주도의 불적」(강창언, 1992, 12호),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주강현, 2013, 42호),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전영준, 2015, 49호)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주대 사학과 전현직 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⁸¹⁾ 특히 1980년대 이전까지 이른바 향토사가들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다가 1981년 제주대 사학과가 창립되면서 소속 학자들의 연구가 제주사 연구를 선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주제별로는 사회경제사 분야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⁸²⁾ 민속학 분야에서 돌하르방 및 동자석 연구도⁸³⁾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외에 해방 후부터 1979년까지 제주사 관련 연구를 개관한 「해방후 제주연구개관(II);역사고고분야」(김종업 외, 1983, 2호)는 최초의 연구사 정리를 시도하여 향후 제주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논문이다.

『탐라문화총서』 및 『탐라문화학술총서』는 총 44종 60권이 발간되었는데 이 중 20종 29권이 제주사 관련 저술이다. 20종의 제주사 관련 저술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역사지서 및 사료집, 둘째 개인문집류, 셋째 특정 주제 연구서이다. 역사지서 및 사료집으로는 『탐라지(초본)』 4권과 『제주대정현호적중초(덕수리/사계리/하모리)』 15권, 개인문집류로는 『부해문집』과 『수은시문집』 및 『변경봉문집』 등, 특정 주제 연구서로는 『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진영일)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영인본(해제 포함)을 발간하면서 사료 발굴 및 제공의 의미가 컸지만, 2002년 『제주도고문서연구』(고창석) 이후는 역주와 저서를 주로 발간하여 학계 및 일반인

81) 『탐라문화』에 수록된 제주대 사학과 전현직 교수(강사)들의 논문은 총 40편에 이른다. 고창석(16편), 진영일(7편), 권인혁(3편), 김동전(3편), 김종업(2편), 박찬식(4편), 이청규(1편), 전영준(2편), 양정필(1편), 장창은(1편).

82) 고문서 및 호적중초 분석(고창석, 김동전, 오창명), 인구변화와 공적부조(조성운, 진관훈), 농민봉기(박찬식) 등 제주의 사회상 조명과 수취체제(진상 포함) 및 지방재정(권인혁, 박찬식, 양진석, 이욱) 등의 경제사 조명 연구가 돋보인다.

83) 동자석 및 돌하르방에 대한 연구자로는 강창언(10호, 1990) 이후 김영익/김민철(27호, 2005), 김정선(33호, 2008), 부정민(42호, 2013), 정성권(50호, 2015)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에게 보다 쉽게 제주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 이후 제주대 사학과에서 박사 학위자가 배출되면서 이들의 학위논문 저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한금순),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강만익)가 바로 그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 <표 1>이다.

<표 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제주사 총서

연번	서명	저자	출전	발행기관	발행연도
1	탐라록(영인)	이원조	탐라문화총서(3)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2	탐라지초본 외(영인)	이원조	탐라문화총서(4)	"	1989
3	탐라지(영인)	남만리	탐라문화총서(5)	"	1989
4	탐라지(영인)	이원진	탐라문화총서(9)	"	1991
5	제주대 정현덕수리호 적중초(1~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11)	"	1993
6	제주대 정현사계리호 적중초(1~6)	"	탐라문화총서(14)	"	1998
7	제주대 정현하모슬리호 적중초(1~5)	"	탐라문화총서(15)	"	2000
8	제주속오군적부	"	탐라문화총서(16)	"	2001
9	부해문집(상)	안병택	탐라문화총서(17)	"	2002
10	제주도고문서연구	고창석	탐라문화학술총서(1)	세림	2002
11	부해문집(하)	안병택	탐라문화총서(1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3
12	수은시집	김희돈 저/ 오문복 역	탐라문화총서(19)	"	2003
13	제주도포구연구	고광민	탐라문화학술총서(2)	각	2004
14	수은문집	김희돈 저/ 오문복 역	탐라문화총서(2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5
15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진영일	탐라문화학술총서(8)	보고사	2008

16	변경봉 문집	변경봉 저/ 허남춘외 역	탐라문화총서(2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17	제주 속의 탐라 십재집	김석익 저/ 오문복 외역	탐라문화총서(26)	보고사	2011
18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윤용택 외	탐라문화학술총서(13)	보고사	2012
19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한금순	탐라문화학술총서(15)	경인문화사	2013
20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김동전, 강만익	탐라문화학술총서(18)	경인문화사	2015

2. 제주학회

제주학회는 1978년 제주도연구회로 창립되어 1996년 제주학회로 개칭한 이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과 더불어 제주학 연구의 양대 본산 역할을 해왔다. 제주의 인문/자연 환경, 역사와 사회구조, 도민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 등 제주도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 활동과 국제사회의 연결 도모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해마다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제주도연구』를 발간하여 제주시 뿐 아니라 제주학 연구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다.

『제주도연구』는 1984년 창간호부터 2018년 49호까지 500편이 넘는 제주학 관련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 중 제주시 관련 논문은 대략 61편으로 꼽을 수 있다.⁸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의 『탐라문화』와 더불어 제주시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수록된 학술지이다. 고대사 11편⁸⁵⁾, 고려시대 9편⁸⁶⁾, 조선시대 33편⁸⁷⁾, 기타 8편⁸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84) 『제주도연구』에 수록된 제주시 논문 목록은 본고 말미에[부록 2]로 소개하였다.

85) 『제주도연구』에 수록된 고대사 관련 논문은 탐라 건국신화와 서복 연구 논문이 주류이다. 그 외 「탐라 부족국가의 성립」(박용후, 1986, 3호), 「상고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전경수, 1987, 4호), 「중국정사에서 본 탐라」(김영덕, 1990, 7호)가 있다.

86) 『제주도연구』에 수록된 고려시대 관련 논문은 최근에 이르러서 다수

3.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창립되었다. 제주학의 정립과 연구의 중추기능 수행 및 제주학 대중화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학 학술대회, 제주학총서 발간,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제주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제주학 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내하고 있다. 2012년 『제주사료와 설화 속의 중국』 및 『제주계록』 이래 2017년 『제주학개론』 및 『탐라왕국』까지 총 33종의 제주학총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중 11종이 제주사 관련 저술이다.

11종의 제주사 관련 저술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개론서, 둘째 사료집 역주, 셋째 특정 주제 연구서이다. 개론서로는 『탐라사의 재해석』과 『제주학개론』, 사료집으로는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주제별 연구서로는 ‘표류’, ‘잣성’, ‘탐라순력도’ 등을 탐색한 저술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중 제주기사에 대해 왕대별 역주 사업은 중앙의 한국고전번역원에서도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료를 제주 지역에서 먼저 수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외에 제주학과 탐라사에 대한 개론서는 관련 학

소개되고 있다. 고려 후기 목축문화(전영준, 2013, 40호)와 해상활동(양정필, 2018, 49호) 및 입도조(홍기표, 2018, 49호) 연구 논문이 돋보인다.

- 87) 『제주도연구』에 수록된 조선시대 관련 논문 중 1990년대 이후 주요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조성윤이 「조선시대 제주도 신분구조 연구 시론」(1989, 6호)을 발표한 이래 고문서(호적중초 등)를 통한 제주도 사회상 조명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강창용, 박찬식, 정수환, 허원영, 손문금, 권오정, 한금순). 그 외 제주 지명(오창명)과 금석문(홍기표)을 통한 제주사 연구도 시도되었다.
- 88) 『제주도연구』에 수록된 기타 논문에는 제주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은 글이 돋보인다. 신용하(「새로운 향토사의 연구대상과 방법」, 1986, 3호)와 김은석(「역사학의 새로운 동향과 향토사」, 1999, 16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 풍장설(김봉옥), 제주 지도(박대헌), 동자석(김춘일) 관련 논문이 있다.

계의 학자들을 동원한 공저로 발간하여 학문 융복합적인 제주사 정립에 의미 있는 활동이 되고 있다. 내용 역시 일반 대중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향후 통사적 제주사 발간의 숙원이 가시권에 들어올 정도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 <표 2>이다.

<표 2>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사 총서

연번	서명	저자	출전	발행연도
1	제주계록	고창석 외	제주학총서(4)	2012
2	제주통사	김봉옥	제주학총서(6)	2013
3	탐라사의 재해석	전경수 외	제주학총서(8)	2013
4	탐라순력도 탐색	오창명	제주학총서(14)	2014
5	김만덕의 실천적 삶과 제민정신 연구	이정화	제주학총서(17)	2015
6	제주의 잣성	한상봉	제주학총서(16)	2015
7	탐라왕국	강문규	제주학총서(32)	2017
8	이방익표류기	권무일	제주학총서(26)	2017
9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효종대)	김일우/백종진/오창명/홍기표	역사자료총서(3)	2017
10	제주학개론	박찬식 외	제주학총서(27)	2017
11	제주바당 표류의 기억	진선희	제주학총서(30)	2017

4.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은 1995년 창립되었다.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향토사료의 발굴 및 발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약 20년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특히 향토사료의 발굴, 발간, 역주 사업은 제주도내 독보적

인 위치를 차지한다. 1996년 김윤식의 『속음청사』를 역주한 이래 2017년 이원조의 『탐라록』 역주까지 24종 33권의 향토사료를 발간하였다. 이 같은 제주문화원의 활발한 사업은 제주사 연구의 기초 사료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계 연구 활동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도 보급되어 제주사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한문 원문으로 된 조선시대 역사지 지서 및 개인 문집류를 한글로 번역하고 주석까지 더했으니 깊이 있는 제주사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김익수, 오문복 등 10여 명의 제주사연구가⁸⁹⁾들이 역주한 저술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역사지지서, 둘째 개인 문집류, 셋째 특정 주제별 사료모음집이다. 그 대표적 역주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지지서로는 『증보탐라지』(담수계 및 윤시동), 『제주고기문집』(김정/임제/이건/신광수), 『탐라기년』(김석익) 등 8종 12권이 있으며, 개인 문집류로는 『지영록』(이익태), 『노봉문집』(김정), 『남사록』(김상헌), 『정헌영해처감록』(조정철), 『규창집』(이건) 등 12종 17권이 있다. 주제별 사료모음집은 『한라산기』, 『표해록』, 『교학사료집』 등 4종 4권이 있다. 특히 김익수는 제주문화원 발간 역주서 중 10여 종 전후의 작업을 수행하여 제주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자로 위상을 높였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 <표 3>이다.

89) 제주문화원의 역주서는 김익수, 오문복, 김봉옥, 김영길, 김지홍, 김일우, 홍기표, 백규상 등이 참여하였다.

<표 3> 제주문화원(문화원연합회) 발간 제주사 총서

연번	저 서	저 자	역자	발행연도
1	속음청사	김윤식	김익수	1996
2	병자일록	미상	김익수	1997
3	지영록	이익태	김익수	1997
4	수신사 기록	김기수/김홍집/박영효	김익수	1998
5	남유록 달고사 탐라별곡 훈민편	박지원/이정무/정언유/양현수	김익수	1999
6	노굴시집 화암시집	김협/신홍석	김익수	2000
7	옛 사람들의 등한라산기	임제/김상헌/김치 등	김봉옥	2000
8	옛 제주인의 표해록	최부/장한철/이방익 등	김봉옥/김지홍	2001
9	남사일록	이증	김익수	2001
10	노봉문집(상/하)	김정	김익수	2001
11	제주사인명사전	김찬흠		2002
12	제주환여승람 제주도편(영인)	이병연 외		2002
13	서복 집단과 제주도	홍순만		2002
14	제주삼읍교회사료집		김지홍/원창애	2003
15	역주 증보탐라지	담수계	홍순만 외	2005
16	정현영해처감록	조정철	김익수	2006
17	제주고기문집	김정/임제/이진/신광수	김일우 외	2007
18	남사록 역주(상/하)	김상헌	홍기표	2008
19	부해문집(1~4)	안병택	오문복	2008
20	규창집	이건	김익수	2010
21	해은문집	김희정	백규상	2014
22	탐라기년	김석익	홍기표 외	2015
23	국역 증보탐라지	윤시동	김영길	2016
24	탐라록(상/중/하)	이원조	백규상	2016

5. 제주도내 박물관

1)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은 1995년 개관하였다. 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보존, 전시, 조사연구를 통해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약 20년간 활동해왔다. 특히 2010년 이후 연간 1권씩 꾸준히 향토사료를 발굴하고 역주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제주문화원과 더불어 제주 역사 관련 여러 사료들의 역주 사업을 추진하는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효열록』을 역주한 이래 2017년 『탐라계록/제주목관첩』 역주까지 11종의 향토사료를 발간하였다.

고창석, 김영길 등이 주로 역주에 참여한 저술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제주 관련 사료집, 둘째 개인 문집류이다. 그 대표적 역주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관련 사료집으로는 『효열록』(김영락), 『탐라지초본』(이원조), 『탐라계록/제주목관첩』(이원조), 『탐라빈홍록』 등 6종이 있으며, 개인 문집류로는 『노촌선생문집』(이약동), 『난곡선생문집』(김양수), 『매계선생문집』(이한진) 등 5종이 있다. 특히 고창석은 제주교육박물관 발간 역주서 중 6종의 작업을 수행하여 제주사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 <표 4>이다.

<표 4>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사 총서

연번	서명	저자	역자	발행연도
1	효열록	김영락	고창석	1996
2	노촌선생문집	이약동	오문복	2006
3	탐라지초본(상/하)	이원조	고창석 외	2007
4	우암선생문집 국역	남구명	김영길	2010

5	효열록/대정군군병도안/보초등록 역해		고창석	2011
6	제주의 고문서(제주교육박물관 소장) 역해		고창석	2012
7	탐라빈홍록 역해		고창석	2013
8	규암선생문집 역주	송인수	백규상	2014
9	난곡선생문집 국역	김양수	이진영	2015
10	매계선생문집 국역	이한진	김영길	2016
11	탐라계록/제주목관첩 역해	이원조	고창석	2017

2) 국립제주박물관/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대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은 2001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제주대박물관은 1967년 개관하였다. 이들 제주도내 주요 박물관들은 주로 특별전 도록 및 학술총서 발간으로 제주시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유물 유적 또는 기증 자료를 통해 제주의 역사문화를 조명하는 도록 및 총서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립제주박물관은 16종,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8종, 제주대박물관은 1종의 제주시 관련 저술을 남겼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인물(김정희, 김석익, 이규원, 이익태, 최부, 안병택/ 6회), 통사(제주의 역사와 문화/ 4회), 특정 주제(대외관계와 해양교류, 도자기, 목마/ 6회)의 세 부문에 16종의 저술을 남겼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고문서(4회), 고지도(2회), 마애명 탁본(1회), 방어유적(1회)의 8종 저술을 남겼으며, 제주대박물관은 고문서 집성 1종을 발간하였다. 특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김익수, 제주대박물관은 고창석이 고문서를 역주하여 제공하였다. 이들은 각각 제주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의 제주시 관련 사료들도 다수 역주하였기 때문에 제주시 연구의 그 공이 크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 <표 5>이다.

<표 5> 제주도내 박물관 제주시 총서

연번	서명	발행(소장)기관	발행연도	비고
1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1	
2	추사 김정희와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2002	
3	항해와 표류의 역사	국립제주박물관	2003	
4	한국문화와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2003	
5	심재 김석익 유물 기증 특별전	국립제주박물관	2004	252건 1067점
6	만은 이규원 유물 기증 특별전	국립제주박물관	2004	95건 247점
7	야계 이익태 유물 기증 특별전	국립제주박물관	2005	131건 301점
8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9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9	
10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2011	
11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2013	
12	제주 말테우리	국립제주박물관	2015	
13	조선 선비 최부, 뜻밖의 중국 건문	국립제주박물관	2015	
14	제주 유학의 큰 스승, 부해 안병택	국립제주박물관	2017	
15	삼별초와 동아시아	국립제주박물관	2017	
16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 바다	국립제주박물관	2017	
17	제주 마애명 탁본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1989	특별전 21회
18	제주의 옛지도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1995	특별전 46회
19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도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2003	특별전 77회
20	고문서 특별전시회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2005	특별전 88회
21	고서적의 세계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2008	특별전 104회

22	제주인의 삶을 읽다(제주인의 옛 문서)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2013	특별전 123회
23	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2015	특별전130회
24	이형상제주목사편지모음집 (역사자료총서01)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2017	김익수 역
25	고문서집성	제주대박물관	2002	고창석 역

6. 기타

1) 제주도사연구회

제주도사연구회는 1989년 창립되었다. 제주대 사학과 및 국교과 교수(강사)와 제주도내 역사교사 및 기존의 향토사가까지 참여해 명실공히 제주사연구가들의 집합체 성격을 띠었다. 제주사의 기본자료 수집/정리부터 기존 연구의 정리, 연구자의 발표/토론/답사, 도민을 위한 교양강좌 실시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2007년 이후 활동이 휴지기로 들어갔다. 1991년~2003년 『제주도사연구』(1~12호), 2005년~2006년 『제주역사문화』(13~15)를 발간하여 총 43편의 제주사 관련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다.⁹⁰⁾ 고대사 8편⁹¹⁾, 고려시대 5편⁹²⁾, 조선시대 20편⁹³⁾, 기타 10편⁹⁴⁾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90) 『제주도사연구』 및 『제주역사문화』에 수록된 제주사 논문 목록은 본고 말미에 [부록 3]으로 소개하였다.

91) 『제주도사연구』 및 『제주역사문화』에 수록된 고대사 관련 연구는 박용후(언어/영주지), 홍순만(서복), 김봉옥(탐라국 문헌), 진영일(탐라국 교역) 등의 글이 있다.

92) 『제주도사연구』 및 『제주역사문화』에 수록된 고려시대 관련 연구는 고창석(현마사진), 김봉옥(원), 김일우(지방제도/삼별초), 류전순효(몽고)의 글이 있다.

93) 『제주도사연구』 및 『제주역사문화』에 수록된 조선시대 관련 연구는 강창용(내노비/환곡), 고창석(공피전/사학/노비/분재기), 김동전(군현구조), 오송희(향교), 조성운(지배세력), 진관훈(진휼), 홍순만(제주목사)

IV. 제주사 연구 과제 검토와 전망

해방 후 제주의 역사 연구사 정리는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때마다 지난 제주사 연구 동향을 소개한 뒤 제주사 연구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시점의 연구 성과를 살펴 볼 때마다 늘 반성과 교훈이 뒤따르고, 이는 향후 제주사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며 그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해방 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 그간 제주사 연구의 과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할 듯하다. 그래야 현 시점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가 제시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제주사 연구의 새로운 과제 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세 차례의 연구사 정리에서 제시됐던 과제를 다음에 소개한다.

먼저 1983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가 수행한 최초의 연구사 정리에서 제시된 과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1) 제주사와 관련된 자료 발굴과 영인 및 역주 작업의 필요성. (2) 제주사와 관련된 논저를 발표할 때마다 논문에 전거 제시. (3) 해방후 1970년대 말까지 약 35년간에 걸친 제주사 연구 논저의 수합 및 집성과 출판. (4) 특정 시대 및 분야에 치중하는 연구 경향의 극복. (5) 통사적(通史的) 제주도사의 정립이었다.

제주사 연구가 소수의 향토사가 중심으로 한문 원전을 직접 읽고 해석하며 개인적으로 자료를 직접 찾아 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다. 그 시점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성하여 향후 연구 주제를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서울 등지의 대학 및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제주 관련 한문 원문 자료를

등의 글이 있다.

94) 『제주도사연구』 및 『제주역사문화』에 수록된 기타 논문은 김봉옥(존자암), 진관훈(화전), 한금순(불교), 강만익(목축)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소개하고 공유하여 함께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 마련이 시급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1991년 제주도사연구회에서 진행한 제주 역사 연구사 정리에서 제시된 과제이다. 여기서는 1980년대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시대별로 소개하다 보니 향후 과제 역시 시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고학과 근현대사(한말/일제시대) 부문을 제외한 제주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총설, 고대/고려, 조선의 세 부문에 걸친 과제를 요약하였다. 첫째 총설 (1) 제주도사 시대구분 논의의 진행 (2)자료의 발굴과 공유 (3)고문서의 발굴과 집성 (4)제주관계 기사의 발췌 작업 (5)해제 및 번역 작업 등 다섯 가지 과제 제시.⁹⁵⁾ 둘째 고대/고려 (1)탐라국사의 시대구분 논의 필요성 (2)주호(국)의 위치 비정 (3)일본 고대 자료 소개와 일인 학자들과의 연구 교류 (4)성주/왕자의 호칭 연구 등 네 가지 과제 제시.⁹⁶⁾ 셋째 조선 (1) 신분구조/수취체제/산업구조 등을 통한 당시 제주민의 존재양상 파악 (2)자료의 발굴과 공개 (3)연구의 질적 향상과 대중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국역과 영인의 지속 등 세 가지 과제 제시.⁹⁷⁾

1981년 제주대에 사학과가 창립되고, 역사 전공의 정통 학자들이 교수로 유입되어 기존의 향토사와 공동의 연구 풍토가 조성되던 시점이었다. 상호간 활발한 교류 속에 제주사 연구 단체까지 탄생되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연구 성과 보다는 학술토론과 발표의 장을 통해 본격적인 제주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각 시대별로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과제로 대거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제주학회에서 학술발표한 연구사 정리이다. 여

95) 총설 부문의 연구사 정리 및 과제 제시 필진은 김종업, 김동진.

96) 고대/고려 부문의 연구사 정리 및 과제 제시 필진은 고창석.

97) 조선 부문의 연구사 정리 및 과제 제시 필진은 권인혁.

기서는 제주사 연구 동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으로 기초자료의 수집과 정리 미흡, 읍면지 및 마을지의 경쟁적 편찬, 지방사 연구 성과의 수합과 홍보 체계 미흡 등을 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제주사 연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고양 (2)제주학 및 제주역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3)제주역사의 대중화 사업 (4)제주사 연구기관간 특성화와 차별화 필요성 (5)연구 주제의 다양화이다.

2000년대 들어 국내외 제주사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및 제주문화원 등의 기관에서 제주 관련 자료의 역주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반 대중의 제주 역사 관심도 점차 높아졌다. 제주대 사학과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연구자들이 양성,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주사 연구의 분명한 목적의식 및 지향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제주민과 연계된 제주사의 대중화 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경쟁적으로 발간되던 읍면지/마을지 등에 대한 중간 점검도 필요하였다.

이상 세 차례의 연구사 정리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서 충실한 수행을 통해 그 성과를 낸 부문도 있고,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당대마다 제시된 과제와 이에 대한 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적절한 제주사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분석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위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연구의 방법론 문제 둘째 연구의 주제 부문 셋째 연구의 지향성 설정이다.

먼저 방법론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1)제주사 연구의 토대 구축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주 관련 고문서 및 원문 등 자료의 발굴과 이에 대한 정

보 공유 및 역주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연구 결과물은 후학이나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사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세 차례에 걸친 연구사 정리에서 제시된 과제 중 공통적으로 강조된 내용도 바로 이 부문이다. ‘제주 관련 사료의 발굴과 영인 및 역주 작업’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및 제주학연구센터 등에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1989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는 이원진, 이원조 등 제주목사가 편찬 주도한 『탐라지(초본)』 및 『탐라록』 등에 대해 영인 저서를 내면서 첫 물꼬를 텃다. 역주 작업은 1996년부터 제주문화원에서 『속음청사』와 『지영록』 등이 김익수에 의해, 2002년에는 고창석, 김찬흠 등에 의해 이원진 『탐라지』 역주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승정원일기』 중 제주기사 역주 사업이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왕대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제주 역사지서 뿐 아니라 제주 관련 개인 문집의 활발한 역주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2)제주사 연구 논저의 집성과 데이터베이스화이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그 한 예가 된다. 제주사, 제주어를 기본축으로 제주의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그 연구 성과를 아카이브화하는 사업은 이제야 첫 걸음을 뗀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주요 주제별 및 세부 분야별로 좀 더 구분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대별/시대별/연구자별 등 보다 세분된 연구 성과의 제공이 필요하다. (3)단독연구보다 공동연구의 추진이다. 1981년 창립된 제주대 사학과는 2000년대 들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자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현재 학위를 지닌 제주 내외의 역사학 연구자와 이들이 시대별/주제별 등으로 나뉘어 공동의 연구를 추진하면 향후 제주사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은 연구의 주제 부문에 대한 과제 제시이다. 특정 시대 및 주제에 치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성하고 있다. 시대별/주제별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예컨대 제주사 및 탐라국사의 시대구분 문제, 탐라국의 주요 호칭 및 실제 규명, 해양문화의 교류 부문(표류 포함), 탐라국의 대외 교류, 고려와 탐라의 관계, 고문서를 통한 조선시대 제주의 사회경제상 조명, 유배/해녀/목마/방어시설/금석문 등 특정 주제 및 유물유적을 통한 제주사 조명 등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 이는 물론 제주사 연구의 다양성과 심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제시되었지만, 연구자 개인의 역량과 연구 영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토론을 통해 향후 시대별/주제별 제주사 연구의 주제 선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지향성 설정이다. 제주사 연구의 지향점은 제주의 정체성 형성 및 오늘날 당면한 제주의 문제 해결에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출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 지어 통사적(通史的)인 제주도사의 정립과 제주역사의 대중화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증보)제주통사』⁹⁸⁾, 『제주사연표』⁹⁹⁾, 『탐라국시대사』¹⁰⁰⁾ 등 통사적 제주사의 편찬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대중적이고 체계적인 제주사 통사 편찬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제주사 연구의 목적과 도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연구자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그 결과물이 조만간 나오길 기대한다.

98) 김봉옥, 1987, 『제주통사』, 제주문화; 2000, 『증보제주통사』, 세림.

99) 제주사정립추진사업협의회, 2005년/2006년, 『제주사연표』, 제주도.

100) 고창석, 2007,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이제 위에서 언급한 제주시 연구의 방법론, 주제, 지향성 세 부문에 초점을 맞춰 제주시 연구의 새로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제주시 연구의 시스템화 및 재정 지원이다. 제주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증가하고 연구 부문이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유기적인 활동으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제주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5단계의 부문별 특화가 필요하다. (1)제주시 자료 발굴과 역주 사업 (2)제주시 주제별 심화 연구 사업 (3)제주시 자료 보존, 복원, 관리 사업 (4)제주시 교육 사업 (5)제주시 홍보 및 활용(방안) 구축 사업 등이 그것이다. 제주시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여러 부문의 사업을 혼용하여 추진함에 따라 곳곳에서 중복 및 단순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연구의 선후 작업은 뒤바뀌기 일췌이고, 학술적 가치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 제주시 연구 기관 및 연구자들을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제주시 연구에 관한 한 컨트롤타워 기관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위의 다섯 부문별 사업을 특화시키는 기관 및 연구소(연구자)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

둘째 제주시의 연구 주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시 연구는 주로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주제에 집중된 성과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시대별, 주제별로 제주시 연구의 기형적 성과를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 선사/고고학, 전근대사, 근현대사 세 부문별로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향후 제주시 정립에 필요한 연구 주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할당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제주시 연구자들의 현황 파악과 그들의 연구 주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주시 연구자와 연구 성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면 향후 연구자 개인 및 공동의 연구 수행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가 반영된 연구 주제 선정 및 배당으로 향후 체계적인 제주사 정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 또는 주제별로 유기적인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의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제주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의 정체성 확립 및 현안 해결에 제주사 연구가 기여해야 할 부분은 당위적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중과 함께하며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에 제주사가 역할해야 할 부분도 크다. 다시 말해 제주사 연구가 단지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제주 사회에 큰 울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연구자들만의 제주사가 아닌 제주민 대중의 제주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사 연구의 다양한 주제 선정도 학자와 일반 대중이 공감하며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통사적인 제주사 편찬도 중요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쉽게 풀이한 제주사 교과서 제작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제주의 오늘과 미래를 관통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 방면에 특화된 제주사 시리즈 편찬도 중요하다. 이른바 제주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올레와 지질 트레킹 등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콘텐츠 사업이 제주민과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제주의 인문을 덧붙인 콘텐츠 사업은 제주사 연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미 유배 스토리텔링 사업 등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제주라는 불변의 공간(자연)에 세월이라는 가역의 시간(인문)을 더한 다양한 주제의 제주사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대중과 함께하는 제주사 연구의 풍토 조성도 향후 제주사가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설립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주 역사문화의 여러 콘텐츠화 사업에 제주사 전공 학자들과 연계하여 보다 풍부하

고 심화된 내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V. 맺음말

본고는 앞선 세 차례(1983, 1991, 2011)의 연구사 정리를 일괄하여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시대별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전망해 보았다. 또한 현재 제주사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였다. 이들이 내놓은 총서들을 목록화하여 후학들에게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사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간략히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맺는다.

첫째 시대별 연구 주제와 전망이다. 고대사(탐라국 시대) 연구는 그간 독립국 탐라의 ‘실체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향후 통사적인 탐라사 편찬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 보다는 ‘국가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부문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는 탐라국에서 조선시대 지방군현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라는 의미를 늘 염두에 두어야겠다. 탐라 고유 체제(문화)가 고려/조선의 체제(문화)와 만나 어떻게 조율하며 그 성격이 변천해갔는가 연구의 초점이 돼야 한다. 조선시대 제주사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심도 있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현 시점에서 이 시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탐라가 조선의 삼읍 체제로 편입되고 온전히 조선의 한 지방(변방)으로 전락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탐라의 독립적 체제와 풍속이 어떻게 조선에 동화되어 갔는가? 또 조선이 제주를 대하는 다방면(수취, 유배, 진휼 등)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자세

가 필요할 듯하다. 근대(구한말)의 제주사 연구는 ‘(외부의)유입과 (제주의)대응’이라는 연구방법론을 가미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총설/기타 부문 제주사의 연구주제는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주 관련 사료 발굴과 국역 둘째 통사적인 제주사 편찬 시도 셋째 주제별 제주사 연구의 시도이다. 현 시점 제주 관련 사료 발굴과 국역 부문 및 주제별 제주사 연구는 상당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통사적인 탐라사(제주사) 편찬은 제주사 연구의 최종 목표로써 탐라의 전근대사 중 고대 탐라국 및 고려시대 탐라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다린 후 추진위 구성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제주사 연구 기관과 그 성과 점검이다. 1967년 창립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은 『탐라문화』라는 학술지를 통해 1982년 창간호부터 2018년 57호까지 500편이 넘는 제주학 관련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제주사 관련 논문은 대략 138편으로 현재까지 제주사 관련 논문으로는 가장 많은 글이 수록된 학술지로 그 위상이 높다. 『탐라문화총서』 및 『탐라문화학술총서』는 총 44종 60권이 발간하였는데, 이 중 20종 29권이 제주사 관련 저술이다. 1978년 창립된 제주학회는 매년 『제주도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1984년 창간호부터 2018년 49호까지 500편이 넘는 제주학 관련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이 중 제주사 관련 논문은 대략 61편으로 꼽을 수 있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의 『탐라문화』와 더불어 제주사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수록된 학술지이다. 2011년 창립된 제주학연구센터는 명실공히 제주사 연구의 본산이 되어가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탐라사의 재해석』등 총 33종의 제주학총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중 11종이 제주사 관련 저술이다. 특히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에 대해 왕대별 역주 사업은 중앙의 한국고전번역원에서도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료를 제주 지역에서 먼저 수행하는 성과

를 내고 있다. 1995년 설립된 제주문화원은 1996년 김윤식의 『속음청사』를 역주한 이래 2017년 이원조의 『탐라록』역주까지 24종 33권의 향토사료를 발간하였다. 제주시 연구의 기초 사료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계 연구 활동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도 보급되어 제주시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밖에 제주교육박물관은 1996년 『효열록』를 역주한 이래 2017년 『탐라계록/제주목관첩』 역주까지 11종의 향토사료를 발간하였다. 제주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은 16종,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8종, 제주대박물관은 1종의 제주시 관련 특별전 도록 및 학술총서를 남겨 학계와 일반 대중에 제주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현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제주시 연구의 새로운 과제를 세 가지만 제시한다. ① 제주시 연구의 시스템화 및 재정 지원이다. 제주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5단계의 부문별 특화가 필요하다. (1) 제주시 자료 발굴과 역주 사업 (2)제주시 주제별 심화 연구 사업 (3) 제주시 자료 보존, 복원, 관리 사업 (4)제주시 교육 사업 (5)제주시 홍보 및 활용(방안) 구축 사업 등이 그것이다. 제주시 연구 기관 및 연구자들을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제주시 연구에 관한 한 컨트롤타워 기관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위의 다섯 부문별 사업을 특화시키는 기관 및 연구소(연구자)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

② 제주시의 연구 주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시 연구는 주로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주제에 집중된 성과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 선사/고고학, 전근대사, 근현대사 세 부문별로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향후 제주시 정립에 필요한 연구 주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할당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③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제주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중과 함께하며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에 제주사가 역할 해야 할 부분도 크다. 제주의 오늘과 미래를 관통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 방면에 특화된 제주사 시리즈 편찬도 중요하다. 이른바 제주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라는 불변의 공간(자연)에 세월이라는 가역의 시간(인문)을 더한 다양한 주제의 제주사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대중과 함께하는 제주사 연구의 풍토 조성도 향후 제주사가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만익, 2011,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강창용 외, 1997,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 고창석, 2007,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 국립제주박물관, 2001~2017, 『제주의 역사와 문화』 ~ 『삼별초와 동아시아』 등 총 16권.
- 국사편찬위원회, 1973~2018, 『한국사연구회보』 1~181.
- 김나영, 2017, 「조선시대 제주도 표류 표도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동진, 2011, 「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 『학술발표논문집』 36, 제주학회.
- 김봉옥, 2000, 『(증보)제주통사』, 세림.
- 김봉현, 1960, 『제주도역사지』, 금중림.
- _____, 1956, 『제주도유인진』, 국서간행회.
- 김오순, 2001, 『탐라순력도산책』, 제주문화.
- 김오진, 2009,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 김종업 외, 1983,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Ⅱ):역사고고분야」,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종업 외, 1991, 「제주도사 연구(1980년대) 회고와 전망-총설~일제시대(5부분)-」, 『제주도사연구』 1.
- 김태능, 1982,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 남도영, 2001, 『제주도 목장사』, 마사박물관.
- 담수계, 1954, 『증보탐라지』 .
- 박찬식, 2008, 『1901년 제주민란 연구』, 각.
- 서울대 규장각, 1992, 『제주 하원리 호적중초』 .
- 석주명, 1949, 『제주도관계문헌집』 .
- _____, 1971, 『제주도자료집』,보진재.

- 왕천천, 2016, 「조선의 중국 표류민 송환방식 변화와 청초 동아시아 해역」,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윤용혁, 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 항쟁』, 일지사.
- 이영권, 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_____, 2013,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제주대 1971~1993, 『논문집』 3, 4, 7, 8, 15, 16, 18, 20, 21, 26, 29, 31,
32, 33, 34, 36.
- 제주교육박물관, 1996~2017, 『효열록』 ~ 『탐라계록』 등 총 11권.
- 제주대박물관, 2002, 『고문서집성』.
-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탐라문헌집』.
- 제주도사연구회, 1991~2003, 『제주도사연구』 1~12.
_____, 2005~2006, 『제주역사문화』 13~15.
- 제주문화원, 1996~2017, 『속음청사』 ~ 『탐라록』 등 총 24권.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989~2017, 『제주 마애명(탁본)』 ~ 『이형상제주목사
편지모음집』 등 총 8권.
- 제주사정립추진사업협의회, 2005년/2006년, 『제주사연표』, 제주도.
-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탐라순력도연구논총』 .
- 제주학연구센터, 2012~2018, 『제주학총서』 4, 6, 8, 14, 16, 17, 26, 27, 30, 32.
_____, 2017, 『역사자료총서』 1~3.
- 진영일, 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
- 탐라문화연구원, 1989~2011, 『탐라문화총서』 3, 4, 5, 9, 11, 14, 15, 16,
17, 18, 19, 20, 24, 26.
_____, 2002~2015, 『탐라문화학술총서』 1, 2, 8, 13, 15, 18.
_____, 1982~2018, 『탐라문화』 1~58.
- 한국사연구회, 2000,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2014/2015, 『고문서집성(108/110/114)』.
- 한금순, 2010,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Abstract

The Outcome and Future Task of Study on History of Jeju after Liberation

Hong, Ki-Pyo*

After liberation, there had been three times of study on history of Jeju so far. One of them had been taken by “Tamra” culture research institute in Jeju university in 1983, the other one taken by research society of history of Jeju in 1991 and lastly, taken by Jeju Academy in 2011. Each of them reviewed the outcome of studies by figuring out the research paper chronologically and per subjects. On top of that, it informed researchers and research institute which makes people can grasp who is the main agent of the research.

First of all, the review of study in 1983 organized and summarized the books related history and archaeology field of Jeju from 1945 to the late 1970s.

Second of all, the review of the study in 1991 provided a brief introduction to contents of books in 1980s and present future research tasks.

These two times of studies had been done while the capability and condition of history research was not in good order. Therefore,

* Former Adjunct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in Sungkyunkwan University.

with small quantity of books, relatively, this manuscript organizes the contents of those books by from criticizing to presenting future research task.

Lastly, the review of study in 2011. This study did not introduce and review the content of the studies unlike the previous two reviews. This is because the researcher and research institute on history of Jeju had increased in number after 1990s, which produced a number of research papers.

This manuscript reviews the outcome of the previous three studies. After that, it develop the contents focusing on next three subjects.

1. chronological research subject(or researcher) and the prospect.
2. Reseach institute of history of Jeju and the outcome.
3. Review on research subject of history of Jeju and the prospect.

The writer of this article made a list of books related to history of Jeju from after liberation to 2017. This list consisted of about a thousand of books which are referred to 『A Collection of Reports of Korea History』 by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as well as journal lists of each research institutes.

These books are classified by periods, subjects, and institutes. With these sources, this article set up three goals.

Firstly, Introducing a list of primary books about history of Jeju in detail.

Secondly, Sugges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 and the subject of history of Jeju per period.

Lastly, Suggesting the way of research on history of Jeju for conducting the study more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Keywords : history of Jeju, history of research, period, subject, institute(organization), task

교신 : 홍기표 630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정2길 3-4
(E-Mail: hkp6236@naver.com)

논문투고일 : 2018. 07. 08

심사완료일 : 2018. 08. 02

게재확정일 : 2018. 08. 06

[부록 1] 『탐라문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제주사 논저 목록

연번	저자	제 목	출 전	연도
1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01	1982
2	김영돈	정의고을(1)	탐라문화 02	1983
3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02	1983
4	김종업 외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Ⅱ); 역사고고분야	탐라문화 02	1983
5	김종업	제주 연구의 현황과 전망 - 역사학적 측면 -	탐라문화 03	1984
6	고창석	원명교체기의 제주도	탐라문화 04	1985
7	고창석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도	탐라문화 05	1986
8	강주진	벽파기문 출생의 추사 김정희 - 제주 유배동기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06	1987
9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06	1987
10	김일근	연간에 투영된 추사의 인간론	탐라문화 06	1987
11	김지홍	온평리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 06	1987
12	양순필, 양진건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06	1987
13	강제연	제주도 유배기의 김윤식	탐라문화 07	1988
14	권인혁	19세기 초 양제해의 모변 실상과 그 성격	탐라문화 07	1988
15	양진건	제주 오현의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07	1988
16	윤치부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탐라문화 07	1988
17	고교공명	중세동아시아해역에서의 해민과 교류; 제주민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08	1989
18	고정우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탐라문화 08	1989
19	고창석 외	옛 제주관문인 화북포구일대 학술조사	탐라문화 08	1989
20	김병하	을묘왜변고	탐라문화 08	1989
21	진축삼	몽원과 제주마	탐라문화 08	1989
22	출구정자	제주도 벌선의 건조·조선·어로기술	탐라문화 08	1989
23	고창석, 양진건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09	1989

24	양순필	추사 김정희의 한문 서한고	탐라문화 09	1989
25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10	1990
26	견민생	탐라왕권과 일본	탐라문화 10	1990
27	고교공명	고득중 연구	탐라문화 10	1990
28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10	1990
29	강창언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	1991
30	김의숙	제주도 목자복 연구	탐라문화 11	1991
31	서경림	제주도와 충승의 관습법 - 문중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11	1991
32	양진건	제주도와 충승의 전통교육 비교	탐라문화 11	1991
33	진영일	제주도·충승 지역에 관한 비교사 시론	탐라문화 11	1991
34	현승환	비양도 설화의 양상과 국토부동관	탐라문화 11	1991
35	강창언	제주도의 불적	탐라문화 12	1992
36	성무경	탐라거인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12	1992
37	양진건	조선조 제주도 교육시설	탐라문화 12	1992
38	추엽룡	도·산의 민속 : 제주도의 신화	탐라문화 12	1992
39	추엽룡	제주도의 사귀	탐라문화 12	1992
40	고창석	<제주계록>에 나타난 제주표도피인의 실태	탐라문화 13	1993
41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도 전답문기의 연구; 고재 일씨 소장문기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3	1993
42	이광규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위치; 사회민속측면	탐라문화 13	1993
43	현용준	제주도 신화와 의례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 13	1993
44	고창석	사계리 능성구씨가와 그 문서	탐라문화 14	1994
45	이청규	삼성신화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탐라문화 14	1994
46	장주근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 정착 과정	탐라문화 14	1994
47	전경수	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 전통	탐라문화 14	1994

48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	1994
49	허 춘	삼성신화 연구 - 성과와 과제 -	탐라문화 14	1994
50	고정윤	연려실기술의 제주기사	탐라문화 15	1995
51	오창명	탐라계록의 이두문과 이두 해독	탐라문화 15	1995
52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도 토지매매의 실상	탐라문화 16	1996
53	권인혁	조선후기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실상;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	1996
54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아병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6	1996
55	박찬식	방성칠난과 이재수란의 주도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탐라문화 16	1996
56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16	1996
57	오창명	제주도 지명 표기의 연구; 조선 후기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	1996
58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국가 의례(제사)	탐라문화 16	1996
59	진영일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1996
60	허 춘	설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고	탐라문화 16	1996
61	김상조	충암 김정의 해도록	탐라문화 17	1997
62	현승환	제주도 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탐라문화 17	1997
63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분재문기의 연구(Ⅰ) - 장전리 강태복씨 소장문기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18	1997
64	김유정	제주의 무신도	탐라문화 18	1997
65	양진건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 구	탐라문화 18	1997
66	정광중, 강만익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 종달·일과·구업 염전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18	1997
67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서북지역 전담문기의 연구	탐라문화 19	1998
68	권인혁,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1998
69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고씨일가의 호구자료 분석	탐라문화 19	1998
70	조성윤, 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	1998

71	지전영사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제주도와 류큐 열도의 교류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9	1998
72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전담매매문기의 연구(I)	탐라문화 20	1999
73	김동전	제주 법화사의 창건과 그 변천	탐라문화 20	1999
74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전담매매문기의 연구(II): -서귀포시 대포리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21	2000
75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	2000
76	고창석	19세기 제주지방의 토지매매 실태 - 애월읍 팍지리 토지문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22	2002
77	진관훈	조선시대 제주의 공적부조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 22	2002
78	강영봉, 오창명	제주도 고문서의 지명 시고	탐라문화 23	2003
79	고창석	비양도 관련문건 소고	탐라문화 23	2003
80	나가모리 미쓰노부	조선후기 제주 진상물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	2003
81	남풍현	거별모라와 탐모라	탐라문화 23	2003
82	진영일	고려 숙종 10년 탐라군 설치 고찰	탐라문화 23	2003
83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분재기연구(초) - 하원동 강성택씨가 소장문서 -	탐라문화 24	2004
84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탐라문화 24	2004
85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2004
86	오창명	제주도 고문서의 이두문과 이두 연구 - 16세기 이두문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24	2004
87	진영일	고려조 탐라과건 외관 고찰	탐라문화 24	2004
88	강창룡	17세기중엽 중국인의 제주 표도 - 현종 8년(1667) 명나라 임인관 일행~ -	탐라문화 25	2004
89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2005
90	진영일	고려기 탐라의 성주와 삼신인 탐색	탐라문화 26	2005
91	김영익, 김민철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 제고와 동자석의 지물 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 분석	탐라문화 27	2005
92	허남춘	삼여신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 신화와 민속을 결합한 경조행사의 재구 -	탐라문화 27	2005
93	오창명	<탐라도>와 지명	탐라문화 28	2006
94	진영일	조선시대 <신인>기사 검토	탐라문화 28	2006

95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절목류 - <감시절목>과 <대정정의각포수세 략혁과절목> -	탐라문화 29	2006
96	부영근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29	2006
97	윤봉택	13세기 제주 묘련사판 <금광명경문구>의 사실 조명 - 순천 송광사장 고려판 천순판 불전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29	2006
98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99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탐라문화 32	2008
100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탐라문화 33	2008
101	김정선	용중석: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33	2008
102	박찬식	양제해 모변과 상찬계	탐라문화 33	2008
103	이육	18~19세기 제주의 진상제 운영과 성격	탐라문화 33	2008
104	김정기	양제해와 제주 백성의 모변(1813) 다시 보기	탐라문화 34	2009
105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장원) 연구	탐라문화 35	2009
106	김유리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	2012
107	송문기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건에 대한 문헌적 고찰	탐라문화 41	2012
108	진관훈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활동	탐라문화 41	2012
109	부정민	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42	2013
110	주강현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	탐라문화 42	2013
111	강동호, 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 연구	탐라문화 48	2015
112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 49	2015
113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 50	2015
114	정종우, 정소연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동물의 통시적 연구	탐라문화 50	2015
115	최형국	18세기 활쏘기 수련방식과 그 실제 - <<임원경제지>>/ <유예지> 사걸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50	2015
116	김강식	<표인영래등록>속의 제주도 표류민과 해역	탐라문화 51	2016

117	김새미오	소백 안달삼의 교유와 그 의미	탐라문화 51	2016
118	김태호	<탐라순력도>의 지형경관에 투사된 지형인식	탐라문화 51	2016
119	류창호	서해 북부 해역에서의 해랑적 활동과 조선 정부의 대응 - 해랑도 수도(1500년)에서 백령진 설치 설치(1609년)까지	탐라문화 51	2016
120	강동호, 양진건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52	2016
121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2016
122	김경주	고고자료로 살펴 본 원과 탐라	탐라문화 52	2016
123	윤용혁	제주 삼별초와 몽골·동아시아 세계	탐라문화 52	2016
124	윤은숙	원말 토곤 테무르 카안의 탐라궁전	탐라문화 53	2016
125	한금순	17세기 제주도 여정의 성격 - 군역부담에 대한 고찰 -	탐라문화 53	2016
126	김새미오	구한말 제주 문인 해은 김희정의 삶과 문학	탐라문화 54	2017
127	엄기표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탐라문화 54	2017
128	오창립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탐라문화 54	2017
129	전영준	2009 개정교육과정과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여몽교류사 서술 분석	탐라문화 54	2017
130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탐라문화 55	2017
131	홍기표	여말선초 청주한씨 제주입도조 한천 제조명	탐라문화 55	2017
132	김일권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에 나타난 한중 고대 천지상서의 교용적 자연학	탐라문화 56	2017
133	김창겸	신라 문무왕의 해양의식	탐라문화 56	2017
134	장승희	추사 김정희의 제주 인식	탐라문화 56	2017
135	김경주	탐라전기의 취락구조와 사회상	탐라문화 57	2018
136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57	2018
137	오창립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관 연구	탐라문화 57	2018
138	장창은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

[부록 2] 『제주도연구』(제주학회) 제주사 논문 목록

연번	저자	제 목	출 전	연도
1	오홍석	범선 항해시대의 제·경 해로	제주도연구(01)	1984
2	김동진	조선조(16C~18C) 제주지방 현감의 실태 분석; 《제주·대정·정의읍지》 선생안조중심	제주도연구(02)	1985
3	강만생	한말 일본의 제주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03)	1986
4	고창석	고려조 제주민란의 성격	제주도연구(03)	1986
5	권인혁	조선후기 제주도사 연구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03)	1986
6	김봉욱	제주의 풍장설에 대한 논의	제주도연구(03)	1986
7	김영돈	제주 해녀의 민속학적 연구	제주도연구(03)	1986
8	박용후	탐라 부족국가의 성립	제주도연구(03)	1986
9	신용하	새로운 향토사의 연구대상과 방법	제주도연구(03)	1986
10	양진권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 연구 (도통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03)	1986
11	조성운	남학당의 활동과 방성칠란	제주도연구(03)	1986
12	홍순만	조선말기 제주도의 유배인과 형사제도	제주도연구(03)	1986
13	홍순욱	천주교 제주선교 중의 신구갈등(1901)	제주도연구(03)	1986
14	박용후	조선조 후기의 제주도 방어 및 이선 대처의 실제	제주도연구(04)	1987
15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04)	1987
16	이정훈	제주 신축 성교란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05)	1988
17	최서면	서양지도에 나타나는 제주도	제주도연구(05)	1988
18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제주도연구(05)	1988
19	김양식	1901년 제주민란의 재검토	제주도연구(06)	1989
20	조성운	조선시대 제주도 신분구조 연구 시론	제주도연구(06)	1989
21	김영덕	중국정사에서 본 탐라	제주도연구(07)	1990
22	유철인	해석인류학과 생애사; 제주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의 모색	제주도연구(07)	1990
23	강창룡	17·8세기의 제주향촌 사회구조와 그 성격 (제주 향안과 천기를 중심)	제주도연구(08)	1991

24	박찬식	제주교안에 대한 일검토(소위 삼의사활동 중심)	제주도연구(08)	1991
25	양영수	한국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비교 연구 (제주도 신화를 중심)	제주도연구(08)	1991
26	양진건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 연구	제주도연구(09)	1992
27	전경수	을나신화와 탐라국산고	제주도연구(09)	1992
28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제주 항진	제주도연구(11)	1994
29	이창기	19세기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 (덕수리 호적중초 중심)	제주도연구(14)	1997
30	김은석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과 향토사	제주도연구(16)	1999
31	양영수	제주신화와 중국신화의 비교연구	제주도연구(18)	2000
32	한창훈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기 인간과 그 문학적 성격	제주도연구(18)	2000
33	박대현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19)	2001
34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19)	2001
35	윤명철	서복의 해상활동에 대한 연구 (항로 중심)	제주도연구(21)	2002
36	이영선	서복은 평화의 사자이다	제주도연구(21)	2002
37	정수일	서복 도한고	제주도연구(21)	2002
38	주영하	서복 사실과 전설의 역사	제주도연구(21)	2002
39	권오정	사계리 호적중초 분석(혼인관계 연구)	제주도연구(23)	2003
40	손문금	사계리 호적중초 분석(호주승계의미)	제주도연구(23)	2003
41	정수환	사계리 호적중초 분석(기술의 성격)	제주도연구(23)	2003
42	허원영	사계리 호적중초 분석(직역변동과 부세운영)	제주도연구(23)	2003
43	오창명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 지명 연구	제주도연구(25)	2004
44	진관훈, 고광명	박영효의 경제사상과 제주에서의 실천	제주도연구(25)	2004
45	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28)	2005
46	오창명	대동여지도(1861)의 제주 지명	제주도연구(31)	2008

47	현문필	출토유물을 통한 원당사지의 조성시기와 성격고찰	제주도연구(33)	2010
48	현문필	존자암의 창건에 관한 고찰	제주도연구(35)	2011
49	한창훈	탐라문건록에 나타난 제주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그 의미	제주도연구(38)	2012
50	박원길	영락제와 제주도	제주도연구(40)	2013
51	전영준	13~14세기 원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 변화	제주도연구(40)	2013
52	한금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하원리 출신 참여자 연구(하원리 호적중초 중심)	제주도연구(40)	2013
53	김성태	송시열의 제주 유배 한시의 교육적 의미	제주도연구(44)	2015
54	김춘일	제주 동자석의 헤어디자인 연구	제주도연구(44)	2015
55	홍기표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현황과 분석	제주도연구(45)	2016
56	홍기표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현황과 분석	제주도연구(47)	2017
57	박원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	제주도연구(48)	2017
58	S.출몬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제주도연구(48)	2017
59	T.테무르	명초 유배지로서의 탐라	제주도연구(48)	2017
60	양정필	원 간섭기 탐라인의 해상활동과 이어도	제주도연구(49)	2018
61	홍기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제주도연구(49)	2018

[부록 3] 『제주도사연구』/ 『제주역사문화』 (제주도사연구회)
 제주사 논문 목록

연번	저자	논 문	출 전	연 도
1	강창용	18세기 제주 내노비의 토지소유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2	강창일	1901년의 제주도민 항쟁에 대하여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3	김동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구조와 지배체제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4	김봉옥	존자암의 위치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5	박용후	영주지에 대한 고찰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6	홍순만	제주목사에 관한 서설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7	오창명	제주계록의 이두문과 이두에 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02	1992
8	강창룡	제주계록에 나타난 제주농업과 환곡	제주도사연구 02	1992
9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 공피전의 설치와 폐단	제주도사연구 02	1992
10	김봉옥	탐라국에 관한 문헌 고찰	제주도사연구 02	1992
11	박용후	영주지에서 본 탐라의 옛날	제주도사연구 02	1992
12	박용후	제주도 고대사와 언어	제주도사연구 02	1992
13	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02	1992
14	홍순만	서북 집단의 제주 도래설	제주도사연구 02	1992
15	고창석	헌마사신 김갑우의 단죄사건	제주도사연구 03	1994
16	김봉옥	원의 지배 때 몽고인의 횡포	제주도사연구 03	1994
17	김정선	제주목관아지 출토 도자기 소고	제주도사연구 03	1994
18	진영일	고대 탐라의 교역과 「국」 형식고	제주도사연구 03	1994
19	고창석	조선시대 제주의 사학	제주도사연구 05	1996
20	김순택	기건의 나 관리 현장	제주도사연구 05	1996
21	고창석	17세기 제주지방의 노비매매실태	제주도사연구 06	1997
22	김일우	고려 태조대 지방지배집단 편제의 제도적 장치	제주도사연구 06	1997
23	오송희	조선후기 제주향교 운영실태	제주도사연구 10	2001
24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제주도사연구 10	2001
25	김일우 외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제주도사연구 11	2002
26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도사연구 11	2002

27	류전순효	몽고의 일본 침입에 대한 소고	제주도사연구 11	2002
28	양도필	초등학교 제주향토사 교육에서 인터넷 활용방안	제주도사연구 11	2002
29	고창석	조선 후기 제주지방의 분재기 연구	제주도사연구 12	2003
30	진관훈	제주도 화전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제주도사연구 12	2003
31	한금순	제주불교 안택기도의 출현 배경과 성격	제주역사문화13/14	2005
32	강만익	전통사회 제주도의 목축지명 읽기	제주역사문화13/14	2005
33	진관훈	18~19세기 제주사회의 진흥과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	제주역사문화13/14	2005
34	박찬식	1901년 제주항쟁의 역사적 기억	제주역사문화13/14	2005
35	김동진	제일제주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변천 그리고 미래	제주역사문화13/14	2005
36	김수희	개항기 제주 멸치어장의 형성과 어업구조의 변화과정	제주역사문화13/14	2005
37	한금순	이형상의 절오백당오백 철퇴, 그 설화와 역사의 교차점	제주역사문화15	2006
38	정미정	조선시대 제주과원 설치와 감골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역사문화15	2006
39	정광중	탐라고대지리교(번역)	제주역사문화15	2006
40	오승언	한남리 설촌 유래에 관한 연구	제주역사문화15	2006
41	김동섭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제 연구	제주역사문화15	2006
42	한승철	논밭 만든 선각자 채구석 연구	제주역사문화15	2006
43	강순원	태평양전쟁기 제주도주둔 일본군 연구	제주역사문화15	2006